



승인(협의)번호
제 7120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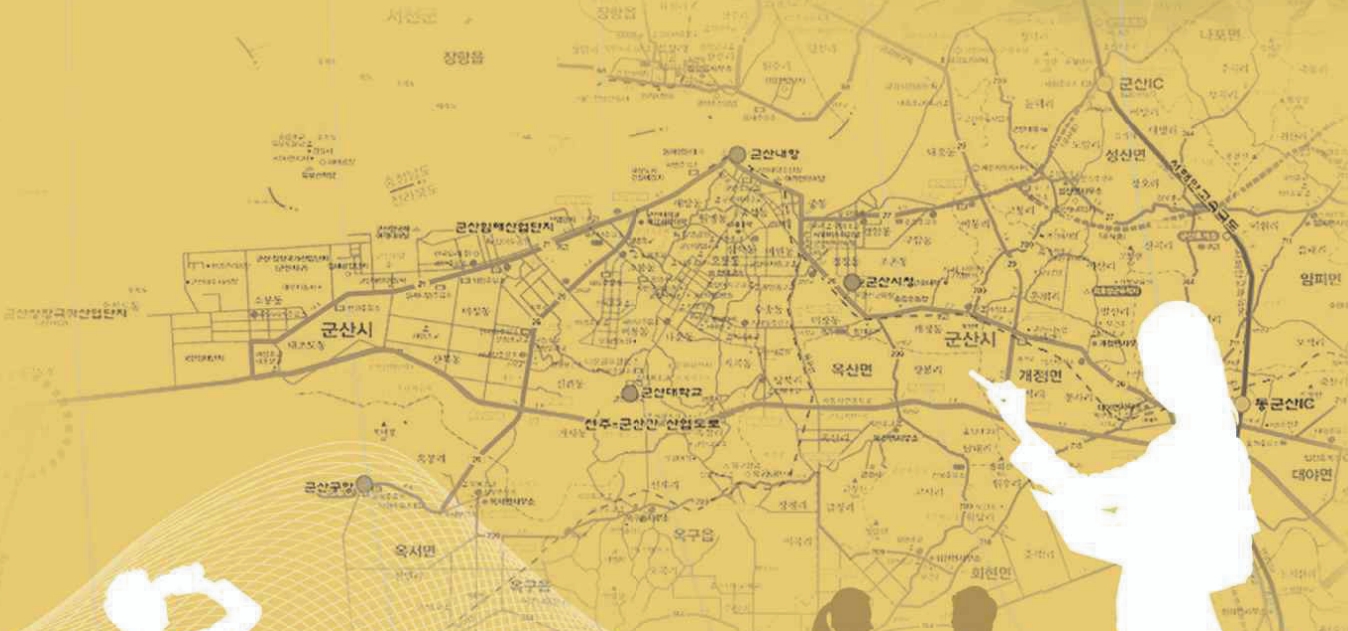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7-4670000-000076-10



2010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

Report on the Social Survey in Gunsan



군 산 시 | GUNSAN CITY
<http://www.gunsan.go.kr>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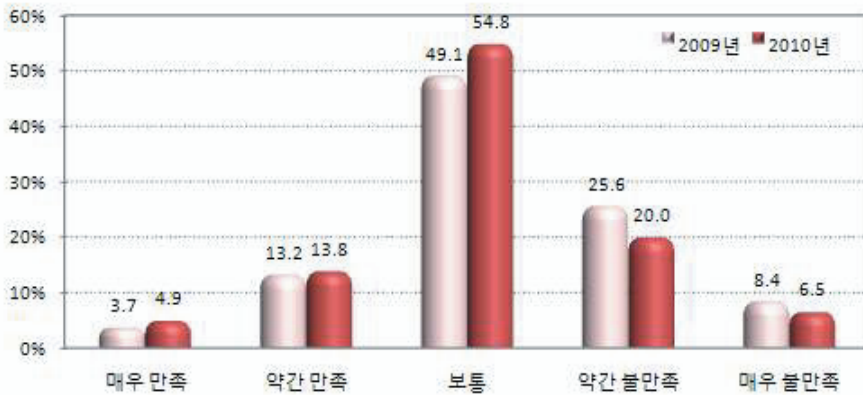
- 1 보건 부문
- 2 교육 부문
- 3 안전 부문
- 4 가족 부문
- 5 환경 부문
- 6 소득과 소비 부문
- 7 지역 부문

1 보건의 부문

1. 주관적 만족감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음

- 군산시민이 현재 생활에 대해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26.5%로 2009년 34.0%보다 7.5%p 하락하였음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표 16] 주관적 만족감

(단위 : %)

구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2009년>	100.0	3.7	13.2	49.1	25.6	8.4		
<2010년>	100.0	4.9	13.8	54.8	20.0	6.5		
초졸이하	100.0	1.2	6.0	47.3	45.5	11.3		
중졸	100.0	3.4	10.1	53.4	33.2	8.5		
고졸	100.0	4.3	14.3	58.1	23.2	6.1		
대졸이상	100.0	7.8	18.4	55.3	18.5	3.9		
미혼	100.0	3.9	16.3	56.6	23.2	6.3		
배우자있음	100.0	5.8	14.3	55.9	24.0	5.6		
사별	100.0	1.6	6.3	43.1	49.0	10.9		
이혼	100.0	1.5	2.3	46.6	49.6	16.4		

2. 건강평가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보통」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41.2%로 가장 많음

-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0%, 3.0%로 2009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여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쁜 편이다」(18.6%)와 「매우 나쁘다」(3.9%)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좋다」(9.4%)와 「좋은 편이다」(36.1%)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고 평가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쁜 편이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건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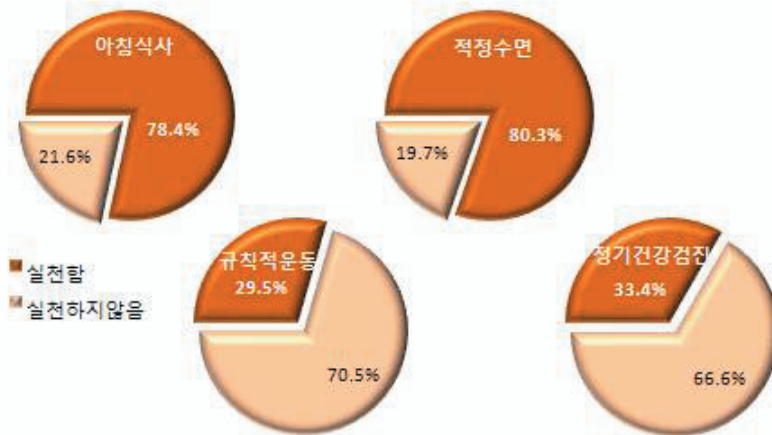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9년>	100.0	8.7	31.0	40.4	15.4	4.5
<2010년>	100.0	7.4	33.4	41.2	15.0	3.0
남자	100.0	9.4	36.1	40.7	11.5	2.2
여자	100.0	5.3	30.5	41.7	18.6	3.9
15 - 19세	100.0	26.1	36.7	35.5	0.9	0.8
20 - 29세	100.0	11.4	53.5	32.1	3.0	-
30 - 39세	100.0	7.1	42.6	42.2	7.0	1.2
40 - 49세	100.0	6.1	30.3	50.1	11.0	2.4
50 - 59세	100.0	3.4	29.3	49.8	15.1	2.4
60세 이상	100.0	1.6	13.3	34.3	41.7	9.1
65세 이상	100.0	1.6	11.8	29.6	46.8	10.2

3. 건강관리

평소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은 78.4%, ‘적정수면(6-8시간)’을 취하는 사람은 80.3%, ‘규칙적운동(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는 사람은 29.5%, ‘정기건강검진(1년에 1회 이상)’을 하는 사람은 33.4%로 나타남

-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아침식사’와 ‘적정수면’ 실천율이 각각 94.7%, 90.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규칙적운동’과 ‘정기건강검진’ 실천율이 각각 23.4%, 29.8%로 다른 직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8]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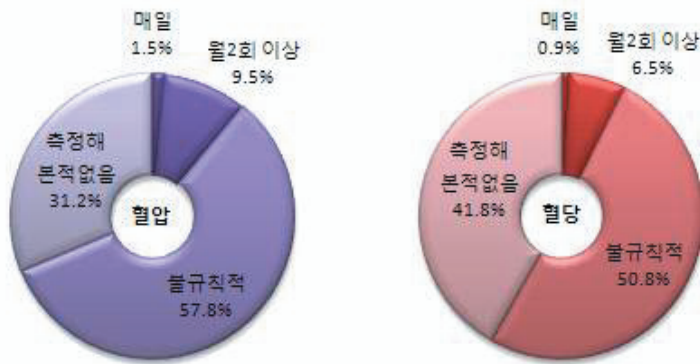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실천함	실천하지않음	계	실천함	실천하지않음
	< 아침식사하기 >			< 적정수면(6-8시간) >		
전체	100.0	78.4	21.6	100.0	80.3	19.7
전문관리	100.0	67.0	33.0	100.0	83.1	16.9
사무	100.0	75.8	24.2	100.0	80.7	19.3
서비스판매	100.0	70.6	29.4	100.0	79.8	20.2
농어업	100.0	94.7	5.3	100.0	90.5	9.5
기능노무	100.0	79.5	20.5	100.0	80.7	19.3
	< 규칙적 운동(일주일에 3일 이상) >			< 정기건강검진(1년에 1회 이상) >		
전체	100.0	29.5	70.5	100.0	33.4	66.6
전문관리	100.0	34.0	66.0	100.0	40.7	59.3
사무	100.0	35.9	64.1	100.0	48.1	51.9
서비스판매	100.0	23.4	76.6	100.0	29.8	70.2
농어업	100.0	31.4	68.6	100.0	43.6	56.4
기능노무	100.0	27.1	72.9	100.0	38.8	61.2

4. 혈압·혈당 측정

평소 혈압과 혈당 측정 빈도는 「불규칙적(평균 월1회 이하)」이라는 응답이 각각 57.8%, 50.8%로 가장 많이 나타남

-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각각 31.2%, 50.8%로 나타났으며, 매일 측정하는 사람은 각각 1.5%,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혈압과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혈당보다는 혈압을 더 자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혈압·혈당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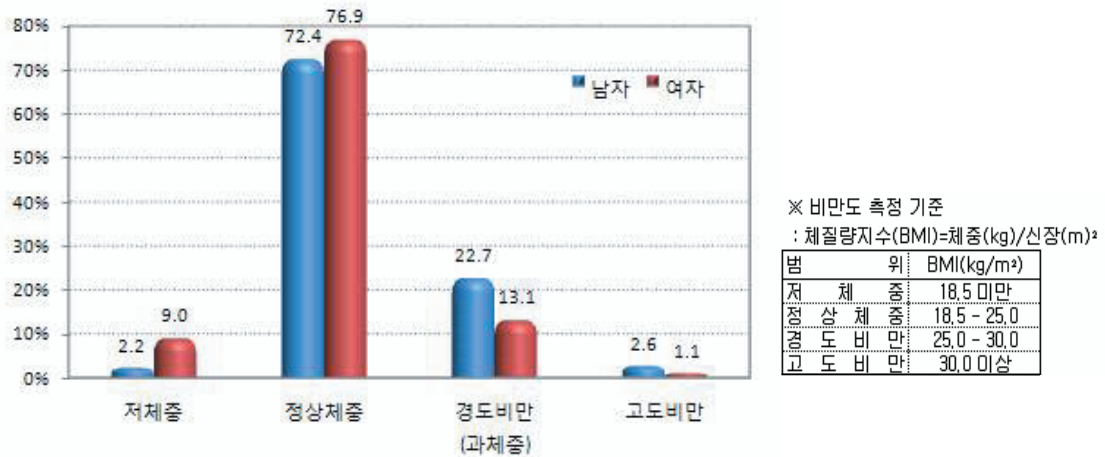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 혈압 >				< 혈당 >				
		매일	월2회 이상	불규칙적	해본적 없음	계	매일	월2회 이상	불규칙적	해본적 없음
전 체	100.0	1.5	9.5	57.8	31.2	100.0	0.9	6.5	50.8	41.8
15 - 19 세	100.0	-	-	30.2	69.8	100.0	-	-	24.2	75.8
20 - 29 세	100.0	0.6	2.8	47.2	49.5	100.0	-	1.2	34.0	64.8
30 - 39 세	100.0	0.3	3.7	63.9	32.1	100.0	-	2.2	52.0	45.8
40 - 49 세	100.0	0.8	8.7	63.4	27.1	100.0	1.1	4.9	56.1	37.9
50 - 59 세	100.0	1.4	15.4	64.1	19.1	100.0	1.3	11.3	59.7	27.7
60 세 이상	100.0	4.8	20.2	60.6	14.4	100.0	2.5	14.9	61.3	21.2
65 세 이상	100.0	4.5	20.9	59.4	15.2	100.0	2.6	15.2	61.3	20.9
취 업	100.0	0.9	8.4	61.2	29.5	100.0	0.5	5.9	53.6	39.9
미 취 업	100.0	2.3	10.7	53.9	33.2	100.0	1.4	7.0	47.6	43.9

5. 비만도

「정상체중」인 사람은 74.6%, 「비만」은 19.9%, 「저체중」은 5.6%로 나타남

- 남자가 「비만」(「경도비만」+「고도비만」)인 비율은 25.3%로 여자(1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가 「저체중」인 비율은 9.0%로 남자(2.2%)보다 많게 나타남
- 「경도비만」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23.4%), 「고도비만」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3.3%)로 나타남



[표 20] 비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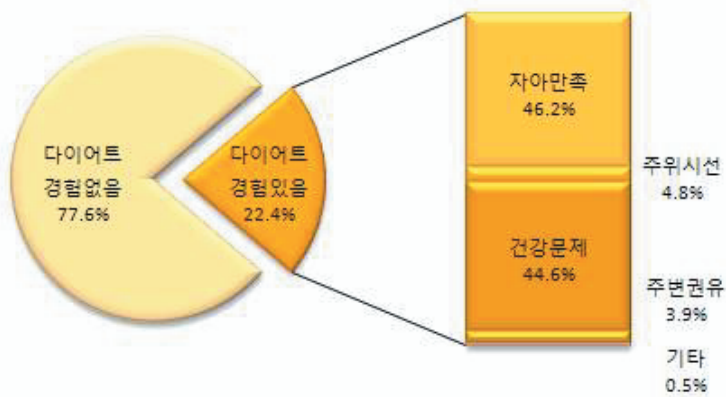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저체중	정상체중	경도비만 (과체중)	고도비만
전 체	100.0	5.6	74.6	18.0	1.9
남 자	100.0	2.2	72.4	22.7	2.6
여 자	100.0	9.0	76.9	13.1	1.1
15 - 19 세	100.0	19.1	72.1	7.1	1.8
20 - 29 세	100.0	8.6	79.1	11.1	1.2
30 - 39 세	100.0	4.4	75.9	18.1	1.6
40 - 49 세	100.0	3.2	75.3	18.3	3.3
50 - 59 세	100.0	1.2	73.4	23.4	1.9
60 세 이상	100.0	4.7	71.1	23.0	1.2
65 세 이상	100.0	6.4	73.5	19.7	0.4

6. 다이어트 경험 및 시도 이유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4%로, 그 중 이유가 「자아만족」과 「건강문제」인 비율이 각각 46.2%, 44.6%로 나타남

- 여자 중 다이어트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31.5%로 남자(13.4%)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다이어트 시도 이유는 여자의 경우 「자아만족」(54.1%)이 가장 많고 남자는 「건강문제」(59.2%)가 가장 많음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 다이어트 시도 이유로 「자아만족」이 가장 많고, 40대 이상의 경우는 「건강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



[표 21] 다이어트 경험 및 시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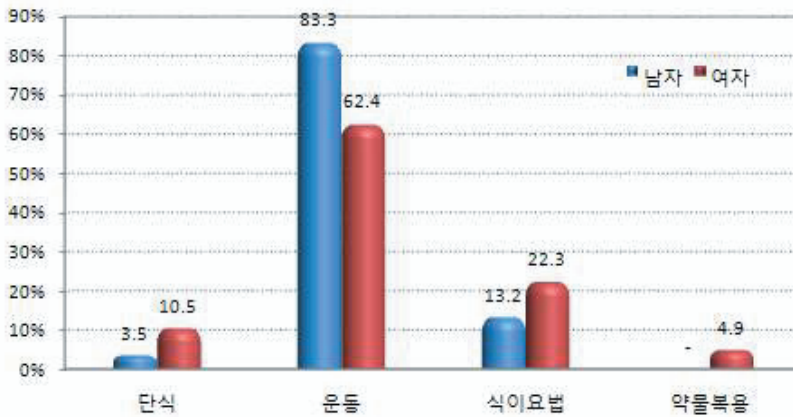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다이어트 경험있음							다이어트 경험없음
		소계	자아만족	주위시선	건강문제	주변권유	기타		
전체	100.0	22.4	100.0	46.2	4.8	44.6	3.9	0.5	77.6
남자	100.0	13.4	100.0	28.2	4.7	59.2	6.4	1.5	86.6
여자	100.0	31.5	100.0	54.1	4.8	38.3	2.8	-	68.5
15-19세	100.0	21.9	100.0	62.1	21.9	15.9	-	-	78.1
20-29세	100.0	34.6	100.0	67.6	3.5	20.5	8.3	-	65.4
30-39세	100.0	34.2	100.0	51.1	4.4	40.8	2.9	0.9	65.8
40-49세	100.0	25.9	100.0	27.5	2.0	67.5	3.0	-	74.1
50-59세	100.0	14.9	100.0	17.0	2.5	77.9	2.5	-	85.1
60세 이상	100.0	4.1	100.0	28.3	3.9	62.9	-	4.9	95.9
65세 이상	100.0	2.4	100.0	24.6	-	75.4	-	-	97.6

7. 다이어트 시도 방법

다이어트 시도 방법으로 많은 것은 「운동」 68.7%, 「식이요법」 19.5%, 「단식」 8.4%, 「약물복용」 3.4% 순으로 나타남

- 남자가 「운동」을 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는 83.3%로 여자(62.4%)보다 많으며, 여자는 「운동」 이외의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 「단식」 및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로 나타났음



[표 22] 다이어트 시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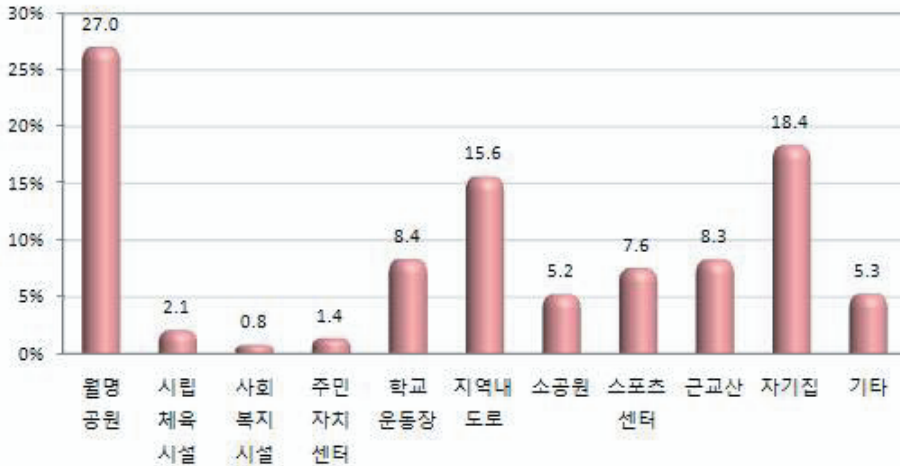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단식	운동	식이요법	약물복용	수술	기타
전체	100.0	8.4	68.7	19.5	3.4	-	-
남자	100.0	3.5	83.3	13.2	-	-	-
여자	100.0	10.5	62.4	22.3	4.9	-	-
15-19세	100.0	18.3	48.0	33.8	-	-	-
20-29세	100.0	5.9	80.3	9.3	4.5	-	-
30-39세	100.0	8.4	65.1	23.1	3.4	-	-
40-49세	100.0	9.4	64.2	22.3	4.0	-	-
50-59세	100.0	6.0	76.0	16.0	2.0	-	-
60세 이상	100.0	3.9	70.0	22.1	3.9	-	-
65세 이상	100.0	-	80.6	19.4	-	-	-

8. 운동 시 이용시설(공간) - 주응답

군산시민이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체육 시설(공간)은 「월명공원·은파관광지」가 27.0%로 가장 많음

- 「월명공원·은파관광지」 다음으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은 「자기집」 18.4%, 「지역내 도로나 걷기코스」 15.6%, 「학교운동장」 8.4%, 「근교산」 8.3% 순으로 많이 나타남
- 다른 연령대가 「월명공원·은파관광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공간)은 「학교운동장」 35.0%, 60대 이상은 「자기집」 28.5%로 다르게 나타났음



[표 23] 운동 시 이용시설(공간) - 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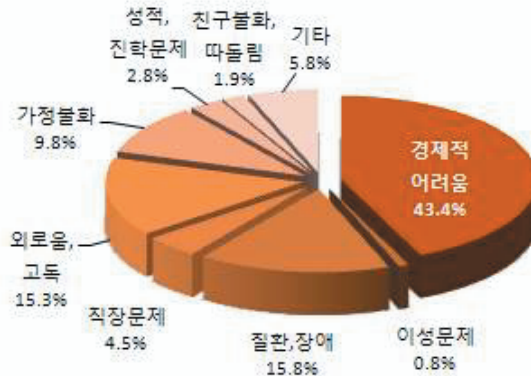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월명공원	시립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학교운동장	지역내 도로	소공원	스포츠센터	근교산	자기집	기타
전체	100.0	27.0	2.1	0.8	1.4	8.4	15.6	5.2	7.6	8.3	18.4	5.3
15-19세	100.0	19.0	0.8	0.8	-	35.0	10.2	-	1.7	6.0	24.2	2.4
20-29세	100.0	26.3	1.7	0.6	1.3	6.3	15.1	4.4	22.5	1.8	16.9	3.0
30-39세	100.0	39.3	2.6	0.3	-	8.6	9.8	6.0	8.5	7.4	10.8	6.6
40-49세	100.0	31.3	1.6	0.3	1.9	5.7	15.4	4.6	7.5	13.3	15.0	3.4
50-59세	100.0	27.3	3.2	0.6	1.9	4.8	17.0	6.7	3.3	12.0	17.4	6.0
60세 이상	100.0	14.7	1.8	1.9	2.4	4.7	23.0	6.6	0.6	7.5	28.5	8.2
65세 이상	100.0	10.1	1.2	2.2	1.7	3.7	23.9	5.8	0.6	7.6	32.2	10.9

9.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

1년동안(2009. 5. 1 ~ 2010. 4. 30.)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7.2%이며,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살 충동을 여자(9.2%)가 남자(5.3%)보다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남
-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연령대는 10대(9.3%)로, 「학교성적, 진학문제」(26.9%), 「외로움, 고독」(26.9%), 「친구와의 불화, 따돌림」(18.3%)이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음



[표 24]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있다											없다
		소계	경제적 어려움	이성 문제	질환, 장애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성적, 진학 문제	친구 불화, 따돌림	기타		
전 체	100.0	7.2	100.0	43.4	0.8	15.8	4.5	15.3	9.8	2.8	1.9	5.8	92.8
남 자	100.0	5.3	100.0	54.9	2.2	15.4	7.7	7.5	4.1	2.7	2.7	2.7	94.7
여 자	100.0	9.2	100.0	36.5	-	16.0	2.5	19.9	13.2	2.8	1.4	7.6	90.8
15 - 19 세	100.0	9.3	100.0	-	-	9.7	-	26.9	9.7	26.9	18.3	8.6	90.7
20 - 29 세	100.0	8.1	100.0	42.0	-	6.4	13.5	25.8	6.2	-	-	6.2	91.9
30 - 39 세	100.0	7.9	100.0	50.2	-	6.5	4.7	14.3	9.8	-	-	14.5	92.1
40 - 49 세	100.0	6.9	100.0	62.6	-	7.5	-	7.5	18.7	-	-	3.7	93.1
50 - 59 세	100.0	6.3	100.0	53.1	5.9	23.9	3.9	3.1	10.1	-	-	-	93.7
60 세 이 상	100.0	6.2	100.0	33.8	-	42.5	2.6	17.0	4.2	-	-	-	93.8
65 세 이 상	100.0	6.6	100.0	33.9	-	37.9	-	22.6	5.6	-	-	-	93.4

10.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인 생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76.5%임

-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비율은 미취업자(30.6%)가 취업자(1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인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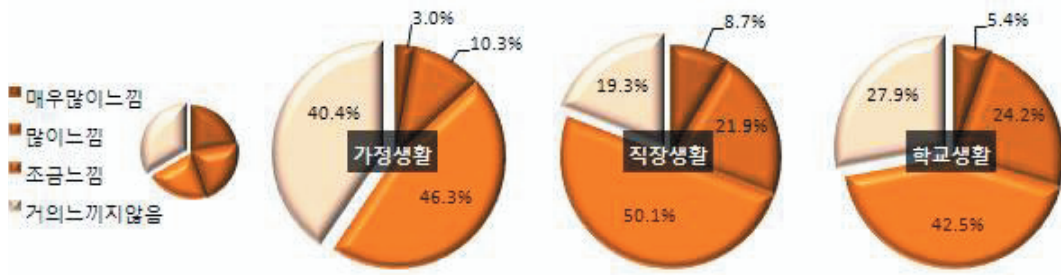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느낌	느낌			거의 느끼지않음
			매우많이느낌	많이느낌	조금느낌	
전체	100.0	76.5	4.5	19.1	52.9	23.5
남자	100.0	77.3	4.0	20.0	53.3	22.7
여자	100.0	75.6	4.9	18.1	52.5	24.4
초졸이하	100.0	60.4	3.0	14.5	42.9	39.6
중졸	100.0	71.9	4.7	15.8	51.5	28.1
고졸	100.0	79.8	4.7	20.4	54.6	20.2
대졸이상	100.0	82.2	4.9	20.9	56.5	17.8
취업	100.0	82.8	5.0	20.0	57.8	17.2
미취업	100.0	69.4	3.8	18.0	47.5	30.6

11. 스트레스 정도 (가정, 직장, 학교 생활)

부문별로 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80.7%로 가장 많음

-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여자(64.3%)가 남자(55.1%)보다 더 느낀다고 응답함
-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고용주(85.6%)와 임금근로자(82.7%)가 자영자(77.8%)와 무급가족종사자(68.0%)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10대(75.9%)가 20대(64.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스트레스 정도 (가정, 직장, 학교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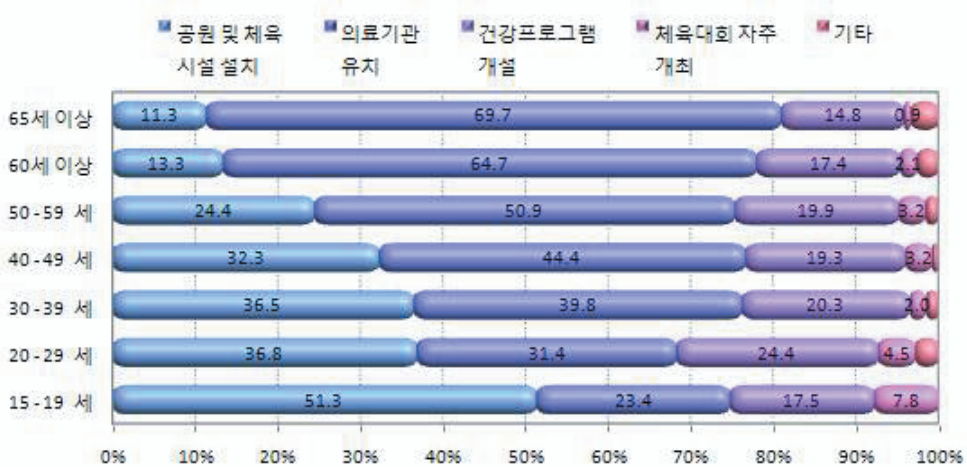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느낌	느낌			
			매우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
가정생활	100.0	59.6	3.0	10.3	46.3	40.4
남 자	100.0	55.1	1.8	8.5	44.8	44.9
여 자	100.0	64.3	4.2	12.1	48.0	35.7
직장생활	100.0	80.7	8.7	21.9	50.1	19.3
임금근로자	100.0	82.7	10.8	21.3	50.6	17.3
고 용 주	100.0	85.6	11.0	25.1	49.5	14.4
자 영 자	100.0	77.8	3.3	25.3	49.1	22.3
무급가족종사자	100.0	68.0	2.7	16.9	48.5	32.0
학교생활	100.0	72.1	5.4	24.2	42.5	27.9
15 - 19 세	100.0	75.9	6.3	26.2	43.4	24.1
20 - 29 세	100.0	64.8	2.9	24.1	37.7	35.2

12. 건강증진 필요사업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의료기관 유치」가 44.9%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의료기관 유치」 다음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30.2%, 「건강프로그램 개설」 19.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로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기관 유치」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건강증진 필요사업

(단위 : %)

구 분	계	공원및체육 시설설치	의료기관 유치	건강프로그램 개설	체육대회 자주 개최	기타
전 체	100.0	30.2	44.9	19.9	3.3	1.7
남 자	100.0	34.3	43.0	16.9	4.4	1.4
여 자	100.0	26.1	46.8	22.9	2.3	1.9
15-19 세	100.0	51.3	23.4	17.5	7.8	-
20-29 세	100.0	36.8	31.4	24.4	4.5	2.8
30-39 세	100.0	36.5	39.8	20.3	2.0	1.5
40-49 세	100.0	32.3	44.4	19.3	3.2	0.8
50-59 세	100.0	24.4	50.9	19.9	3.2	1.6
60세 이상	100.0	13.3	64.7	17.4	2.1	2.5
65세 이상	100.0	11.3	69.7	14.8	0.9	3.3

2 교육 부문

13.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

취학중(초, 중, 고)인 자녀가 있는 사람의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8.4%로 가장 많음

- 학력별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취학중인 자녀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취학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 학교에 대하여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하는 경우는 32.6%이며,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8.9%로 나타남



[표 28]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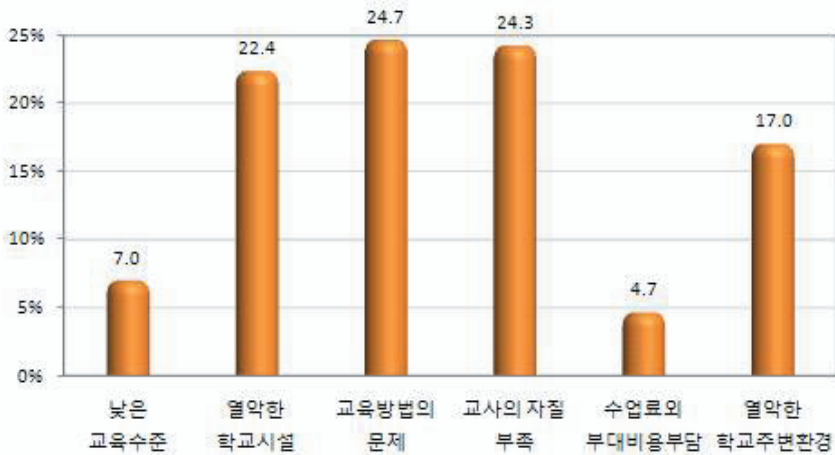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취학자녀 있음							취학자녀 없음
		소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전체	100.0	24.2	100.0	8.3	24.3	58.4	6.8	2.1	75.8
남자	100.0	24.5	100.0	7.7	24.6	61.5	2.9	3.3	75.5
여자	100.0	24.0	100.0	9.0	24.0	55.2	11.0	0.9	76.0
초졸이하	100.0	5.8	100.0	6.1	31.5	62.4	-	-	94.2
중졸	100.0	11.0	100.0	-	11.1	84.8	4.1	-	89.0
고졸	100.0	34.2	100.0	8.2	26.6	58.2	5.7	1.2	65.8
대졸이상	100.0	26.4	100.0	9.9	21.9	54.6	9.7	3.9	73.6

14. 자녀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취학중(초, 중, 고)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의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방법의 문제」가 24.7%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교육방법의 문제」 다음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의 자질 부족」 24.3%, 「열악한 학교 교육시설」 22.4%, 「열악한 학교 주변 환경(교통불편 등)」 17.0%, 「낮은 교육수준」 7.0%, 「수업료 외 부대비용의 부담」 4.7% 순으로 나타남
- 여자의 경우, 자녀의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열악한 학교시설」을 30.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교사의 자질 부족」을 47.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표 29] 자녀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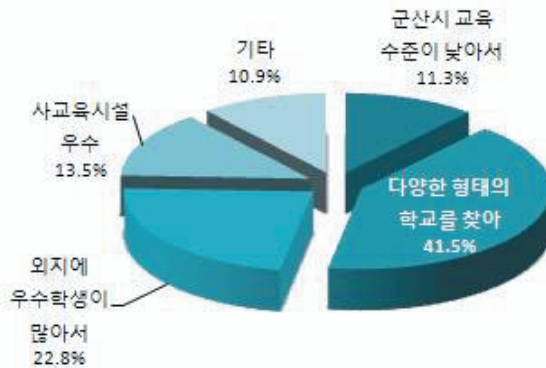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낮은 교육수준	열악한 학교시설	교육방법의 문제	교사의 자질 부족	수업료외 부대비용 부담	열악한 학교 주변환경	기타
전체	100.0	7.0	22.4	24.7	24.3	4.7	17.0	-
남자	100.0	6.7	8.2	21.7	47.9	-	15.5	-
여자	100.0	7.1	30.1	26.3	11.4	7.2	17.9	-
취업	100.0	6.8	15.0	21.7	35.2	3.4	17.9	-
미취업	100.0	7.4	38.9	31.2	-	7.4	15.0	-

15. 자녀의 외지 진학 이유

군산시가 아닌 외지로 자녀를 진학시킨 이유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학교(과학고, 예술고 등)를 찾아서」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자녀의 외지 진학 이유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학교(과학고, 예술고 등)를 찾아서」라는 응답 다음으로는, 「외지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22.8%, 「외지에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시설이 많아서」 13.5%, 「군산시 교육수준이 낮아서」 11.3% 순으로 나타남
- 외지에 진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50대’가 1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12.3%, ‘30대’ 1.3% 순으로 나타남



[표 30] 자녀의 외지 진학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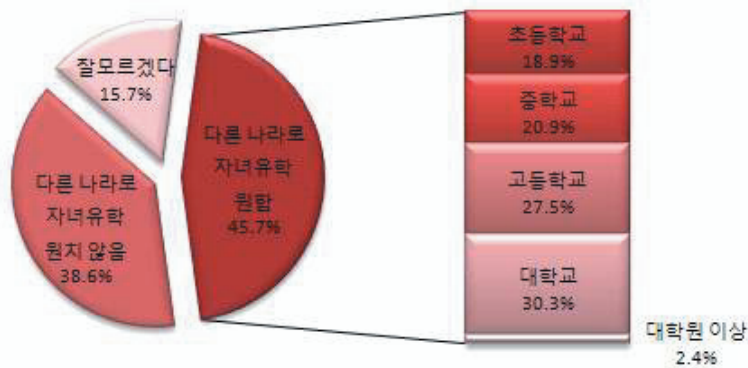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외지진학 자녀있음	소계	군산시 교육수준 이 낮아서	다양한 학교형태 를 찾아	외지에 우수학생 이 많아서	사교육 시설 우수	기타	외지진학 자녀없음
전체	100.0	8.0	100.0	11.3	41.5	22.8	13.5	10.9	92.0
남자	100.0	8.8	100.0	15.5	42.0	22.3	10.2	10.1	91.2
여자	100.0	7.2	100.0	5.9	41.0	23.6	17.7	11.9	92.8
30-39세	100.0	1.3	100.0	-	40.9	59.1	-	-	98.7
40-49세	100.0	12.3	100.0	14.3	38.4	20.3	13.2	13.8	87.7
50-59세	100.0	15.6	100.0	-	58.4	20.8	20.8	-	84.4
60세 이상	100.0	-	-	-	-	-	-	-	100.0

16.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

학부모 중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른 나라로 자녀유학을 원하는」 사람은 45.7%임

- 자녀 유학을 원하는 경우, 유학보내는 단계는 「대학교」 30.3%, 「고등학교」 27.5%, 「중학교」 20.9%, 「초등학교」 18.9% 순으로 나타남
- 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31] 자녀 유학을 보내는 단계

(단위 : %)

구분	계	원함								원하지 않음	잘 모름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전체	100.0	45.7	100.0	18.9	20.9	27.5	30.3	2.4	38.6	15.7	
초졸이하	100.0	22.5	100.0	-	55.0	-	45.0	-	48.3	29.2	
중졸	100.0	24.6	100.0	-	49.6	33.3	17.1	-	45.1	30.3	
고졸	100.0	39.1	100.0	19.5	23.6	30.0	25.9	1.0	46.4	14.5	
대졸이상	100.0	60.8	100.0	20.2	15.4	25.9	34.6	3.9	25.2	14.1	

[표 32] 자녀 유학을 원하는 이유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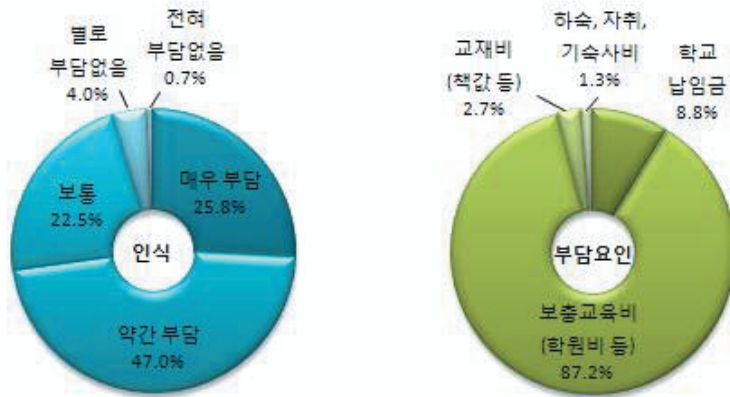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국제적 안목을 키우기위해	외국어 습득	외국의학력 중시풍조	더 적합한 교육을 찾아서	사교육비가 많이들어서	기타
남자	100.0	41.9	38.8	24.3	10.4	33.9	9.0	-
여자	100.0	41.0	48.8	26.1	5.7	28.7	9.3	-

17. 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교육비 부담요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2.8%로 나타남

- 자녀 교육비 내역 중 「보충교육비(학원비, 학교보충교육비, 과외비 등)」가 가장 「부담스럽다」는 학부모가 87.2%로 가장 많았음



[표 33] 교육비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부담스러움			보통	부담스럽지 않음	별로 부담없음	전혀 부담없음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매우 부담				
전 체	100.0	72.8	25.8	47.0	22.5	4.7	4.0	0.7
30 - 39 세	100.0	69.9	25.5	44.4	23.8	6.3	5.6	0.7
40 - 49 세	100.0	75.8	28.2	47.7	20.4	3.8	3.0	0.8
50 - 59 세	100.0	65.5	17.4	48.1	31.2	3.3	3.3	-
60 세 이상	100.0	57.4	-	57.4	35.2	7.4	7.4	-

[표 34] 교육비 부담요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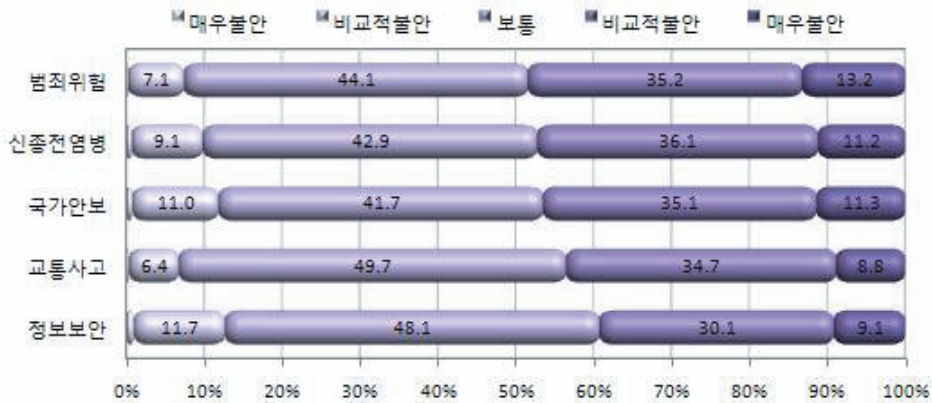
구 분	계	학교 납임금	보충교육비 (학원비 등)	교재비 (책값 등)	하숙, 자취, 기숙사비	기타
전 체	100.0	8.8	87.2	2.7	1.3	-
30 - 39 세	100.0	0.9	98.3	0.8	-	-
40 - 49 세	100.0	13.9	80.9	2.8	2.4	-
50 - 59 세	100.0	13.9	78.5	7.5	-	-
60 세 이상	100.0	-	67.9	32.1	-	-

3 안전 부문

18.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 분야별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식량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불안하다」(「비교적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안전하다」(「매우 불안하다」+「비교적 불안하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중 「불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범죄위험' 48.4%, '신종전염병(신종바이러스, 조류독감, SARS 등)' 47.2%,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46.5%, '교통사고' 43.5% 순으로 나타남



[표 3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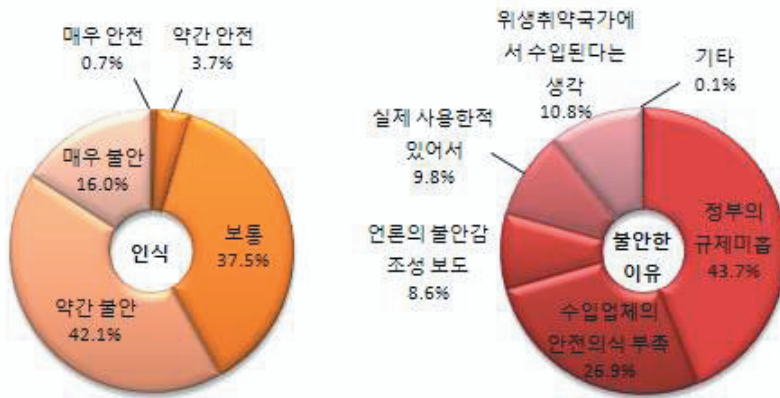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안전						
		매우	비교적	보통	불안	비교적	매우	
국가안보	100.0	11.9	0.8	11.0	41.7	46.5	35.1	11.3
자연재해	100.0	15.5	1.0	14.5	56.5	28.0	22.6	5.3
건축·시설물	100.0	17.7	0.8	16.8	62.3	20.0	16.1	3.9
교통사고	100.0	6.7	0.4	6.4	49.7	43.5	34.7	8.8
화재	100.0	13.0	0.7	12.3	57.9	29.1	25.2	3.8
식량안보	100.0	29.6	4.7	24.9	51.4	19.0	15.3	3.7
정보보안	100.0	12.7	1.0	11.7	48.1	39.2	30.1	9.1
신종전염병	100.0	9.8	0.8	9.1	42.9	47.2	36.1	11.2
범죄위험	100.0	7.4	0.3	7.1	44.1	48.4	35.2	13.2

19.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약간 불안하다」)는 응답이 58.1%로 나타남

- 수입식품에 대해 느끼는 불안함은 여자(61.2%)가 남자(55.0%)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관리 미흡」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36]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안 전						
		매우	약간	보통	불안	약간	매우	
전 체	100.0	0.7	3.7	37.5	58.1	42.1	16.0	
남 자	100.0	1.0	4.1	39.9	55.0	40.1	14.9	
여 자	100.0	0.3	3.4	35.1	61.2	44.1	17.1	

[표 37] 수입식품이 안전이 불안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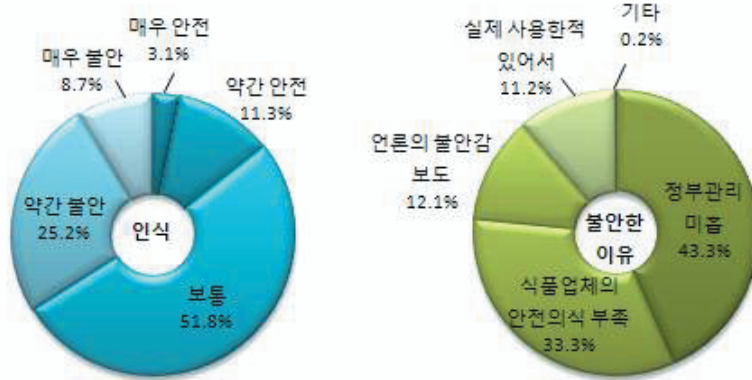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정부의 규제미흡	식품수입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	언론의 불안감 조성 보도	실제 사용한적 있어서	위생취약국가에서 수입된다는 생각에	기타
전 체	100.0	43.7	26.9	8.6	9.8	10.8	0.1
남 자	100.0	43.1	30.0	6.8	9.2	10.7	0.2
여 자	100.0	44.3	24.1	10.3	10.4	10.9	-

20.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식품 안전이 불안한 이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하여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약간 불안하다」)는 응답은 33.9%였으며, 「안전하다」(「약간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남
-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한 이유는 「정부의 관리 미흡」 43.3%, 「식품업체의 안전 의식 부족」 33.3% 순으로 나타남



[표 38]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

구 분	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전 체	100.0	3.1	11.3	51.8	33.9	25.2	8.7	
남 자	100.0	3.4	10.6	55.4	30.6	21.7	8.9	
여 자	100.0	2.8	12.0	48.0	37.2	28.7	8.5	

[표 39] 식품 안전이 불안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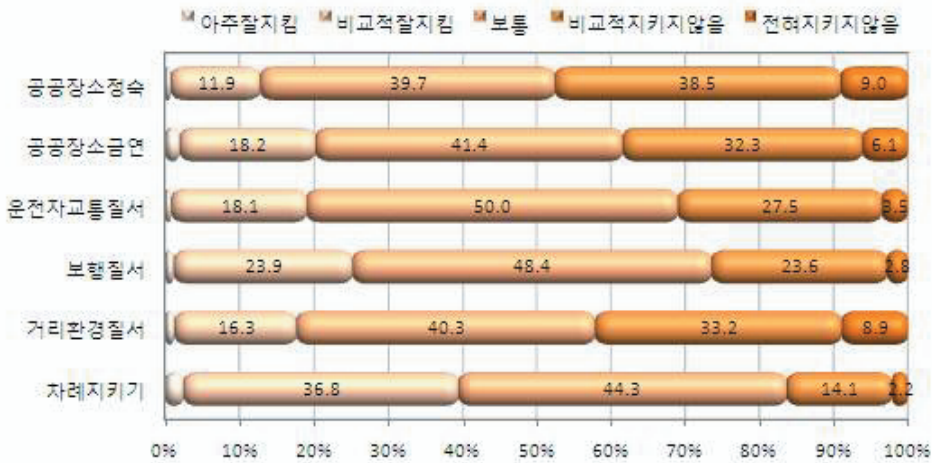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정부관리 미흡	식품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언론의 불안감 보도	실제 사용한 적 있어서	기타
전 체	100.0	43.3	33.3	12.1	11.2	0.2
남 자	100.0	46.8	33.6	9.4	9.8	0.4
여 자	100.0	40.3	32.9	14.3	12.4	-

21. 공공질서 수준

공공질서 수준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차레지키기’로, 사람들이 승강장, 극장, 화장실 등을 사용할 때 차레를 「잘 지킨다」(「아주 잘 지킨다」+「비교적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9.3%로 나타남

- 사람들이 가장 잘 「지키지 않는다」(「비교적 지키지 않는다」+「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공공장소 정숙’ 47.5%, ‘거리환경질서’ 42.1%, ‘공공장소 금연’ 38.4% 순으로 나타남
- ‘차레지키기’ 외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키지 않는다」(「비교적 지키지 않는다」+「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잘 지킨다」(「아주 잘 지킨다」+「비교적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40] 공공질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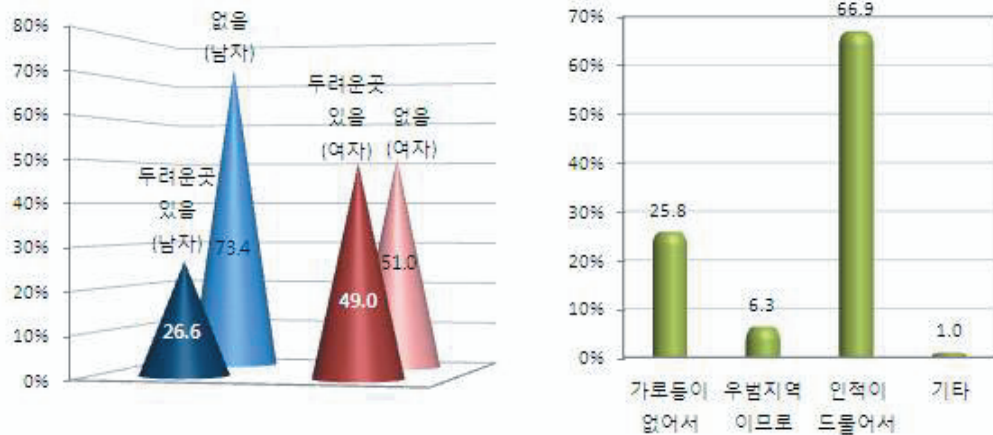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잘지킴			보통	지키지 않음		
		아주	비교적	전혀		비교적	전혀	
차레지키기	100.0	39.3	2.5	36.8	44.3	16.3	14.1	2.2
거리환경질서	100.0	17.6	1.3	16.3	40.3	42.1	33.2	8.9
보행질서	100.0	25.2	1.2	23.9	48.4	26.4	23.6	2.8
운전자교통질서	100.0	19.0	0.9	18.1	50.0	31.0	27.5	3.5
공공장소금연	100.0	20.2	2.0	18.2	41.4	38.4	32.3	6.1
공공장소정숙	100.0	12.8	0.8	11.9	39.7	47.5	38.5	9.0

22. 야간 보행이 두려운 원인

여자의 경우, 집 근처 야간에 혼자 걸기가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0%로 나타남

- 남자의 경우,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6%로 나타남
- 집 근처의 야간에 혼자 걸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 경우, 그 원인으로는 「인적이 드물어서」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로등이 없어서」 25.8%, 「우범지역이므로」 6.3% 순으로 나타남



[표 41] 야간보행이 두려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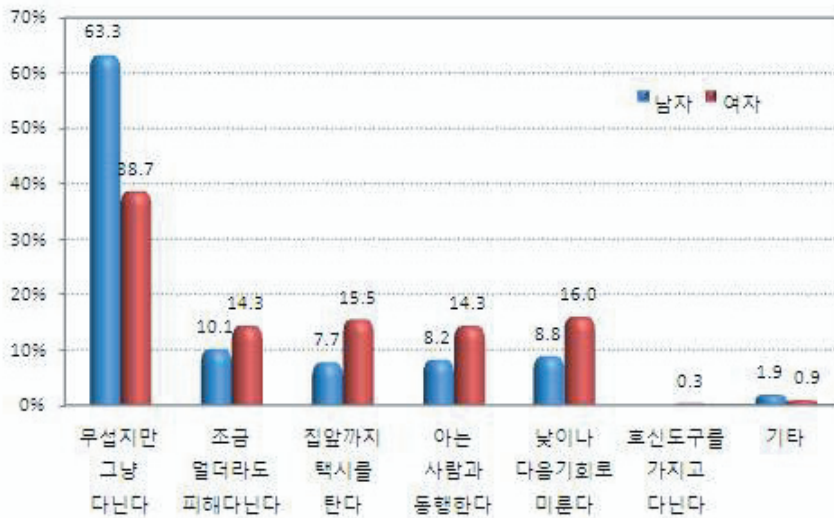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두려운곳 있음							두려운곳 없음
		소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전체	100.0	37.7	100.0	25.8	6.3	66.9	1.0	62.3	
남자	100.0	26.6	100.0	26.7	7.0	65.4	0.9	73.4	
여자	100.0	49.0	100.0	25.3	6.0	67.7	1.0	51.0	
단독주택	100.0	29.7	100.0	25.6	3.2	70.7	0.5	70.3	
아파트	100.0	43.3	100.0	27.2	7.8	63.9	1.1	56.7	
연립주택	100.0	48.9	100.0	14.0	13.2	70.5	2.3	51.1	
다세대주택	100.0	42.0	100.0	42.8	-	57.2	-	58.0	
기타	100.0	42.4	100.0	8.4	-	91.6	-	57.6	

23. 야간 보행 시 대처행동

집 근처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경우, 대처행동으로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음

- 여자의 경우, 야간 보행이 두려울 때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는 응답이 38.7%로 대처행동 중 가장 많긴 하지만 남자의 경우(63.3%)보다는 매우 적으며, 「낮이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16.0%, 「집앞까지 택시를 탄다」 15.5%, 「조금 멀더라도 피해 다닌다」 14.3%,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14.3% 등의 응답이 고루 나타남



[표 42] 야간보행 시 대처행동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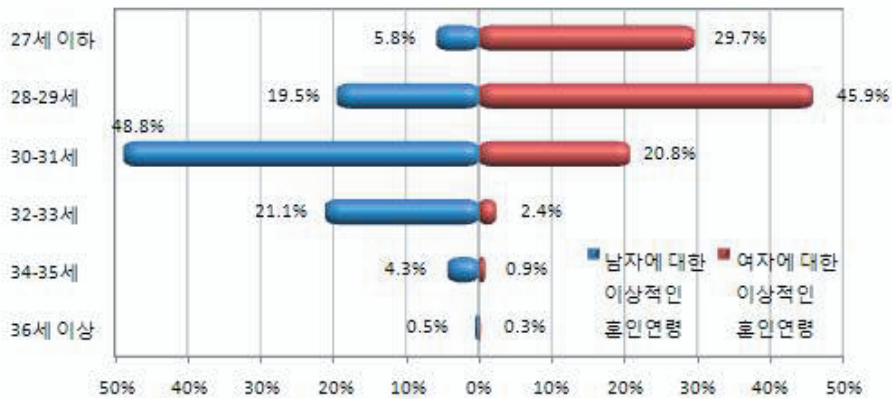
구분	계	무섭지만 그냥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피해다닌다	집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이나 다음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전체	100.0	47.4	12.8	12.7	12.1	13.4	0.2	1.2
남자	100.0	63.3	10.1	7.7	8.2	8.8	-	1.9
여자	100.0	38.7	14.3	15.5	14.3	16.0	0.3	0.9
단독주택	100.0	53.4	7.0	9.2	15.3	13.1	-	2.0
아파트	100.0	42.8	17.8	14.1	11.5	12.7	0.4	0.7
연립주택	100.0	40.8	6.7	21.9	6.9	21.3	-	2.4
다세대주택	100.0	73.8	-	6.6	-	19.7	-	-
기타	100.0	72.2	10.4	8.7	8.7	-	-	-

4 가족 부문

24. 이상적인 혼인연령

남자가 혼인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연령으로 「30-31세」라는 응답이 48.8%, 여자는 「28-29세」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상적인 혼인연령을 더욱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상적인 혼인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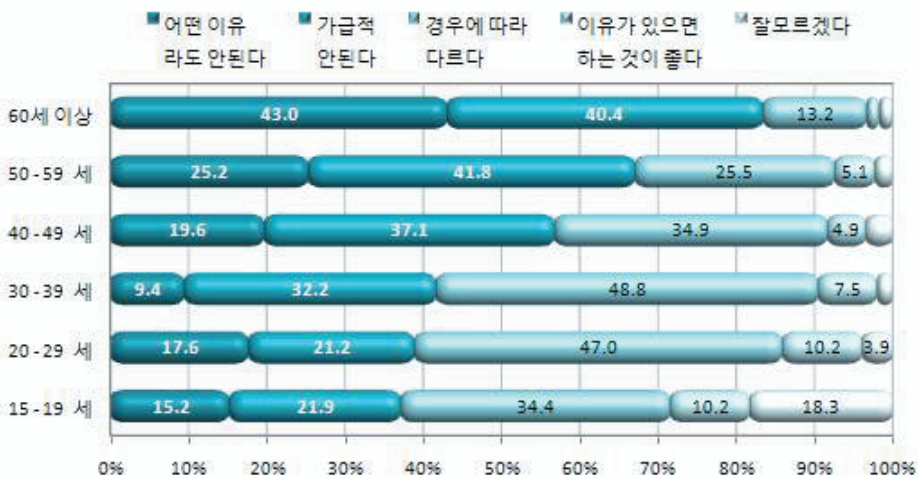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27세 이하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6세 이상
남자의 혼인연령	100.0	5.8	19.5	48.8	21.1	4.3	0.5
15-19세	100.0	7.8	25.4	34.4	25.6	6.8	-
20-29세	100.0	2.6	14.2	51.8	25.1	5.7	0.6
30-39세	100.0	4.8	11.5	42.7	31.1	8.6	1.3
40-49세	100.0	4.0	23.9	52.0	16.6	2.9	0.5
50-59세	100.0	5.5	22.5	55.0	16.0	1.0	-
60세 이상	100.0	10.5	22.5	49.8	14.9	2.0	0.2
65세 이상	100.0	13.6	21.8	47.5	15.0	1.9	0.2
여자의 혼인연령	100.0	29.7	45.9	20.8	2.4	0.9	0.3
15-19세	100.0	25.2	41.7	23.0	6.0	3.3	0.8
20-29세	100.0	17.1	49.8	29.1	2.8	0.6	0.6
30-39세	100.0	23.6	45.8	24.9	3.1	2.0	0.6
40-49세	100.0	30.2	49.7	18.0	1.6	0.5	-
50-59세	100.0	37.3	45.3	16.4	1.1	-	-
60세 이상	100.0	40.7	41.5	15.6	1.9	0.3	-
65세 이상	100.0	44.6	38.6	14.1	2.4	0.2	-

25.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된다」(「어떤 이유라도 안된다」+「가급적 안된다」)는 견해가 56.4%로 가장 많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혼해서는 안된다」(「어떤 이유라도 안된다」+「가급적 안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와 30대의 경우,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각각 47.0%, 48.8%로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이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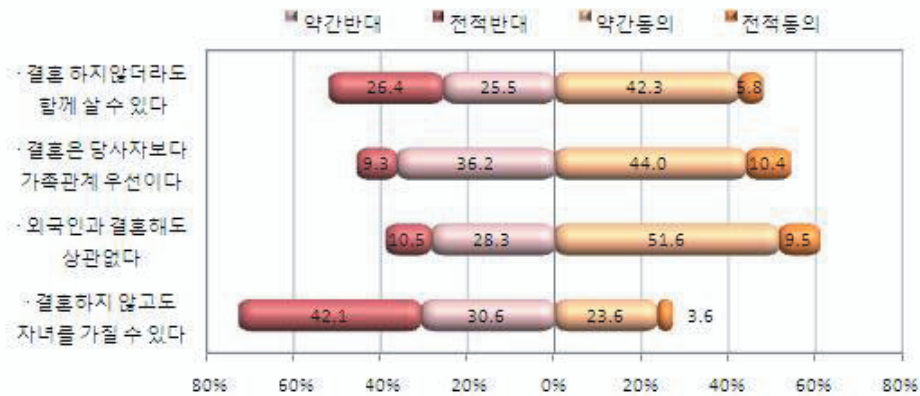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어떤이유라도 안된다	가급적 안된다				
전체	100.0	56.4	22.6	33.8	33.6	6.1	3.9
15-19세	100.0	37.1	15.2	21.9	34.4	10.2	18.3
20-29세	100.0	38.8	17.6	21.2	47.0	10.2	3.9
30-39세	100.0	41.6	9.4	32.2	48.8	7.5	2.1
40-49세	100.0	56.8	19.6	37.1	34.9	4.9	3.5
50-59세	100.0	67.0	25.2	41.8	25.5	5.1	2.3
60세 이상	100.0	83.4	43.0	40.4	13.2	1.6	1.8
65세 이상	100.0	83.9	45.3	38.5	13.0	0.9	2.3
미혼	100.0	36.5	14.9	21.6	43.6	10.6	9.3
배우자 있음	100.0	63.1	23.6	39.4	31.1	4.2	1.6
사별	100.0	77.9	43.5	34.4	16.4	2.5	3.2
이혼	100.0	29.6	12.3	17.3	46.6	16.0	7.8

26.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는 의견에 「동의」(「약간 동의」+「전적 동의」)하는 사람은 48.1%,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는 의견에 「동의」 하는 사람은 61.1%로 나타남

-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는 견해에 72.7%로 가장 「반대」(「약간 반대」+「전적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등의 문항에서 남자가 「동의」(「전적 동의」+「약간 동의」)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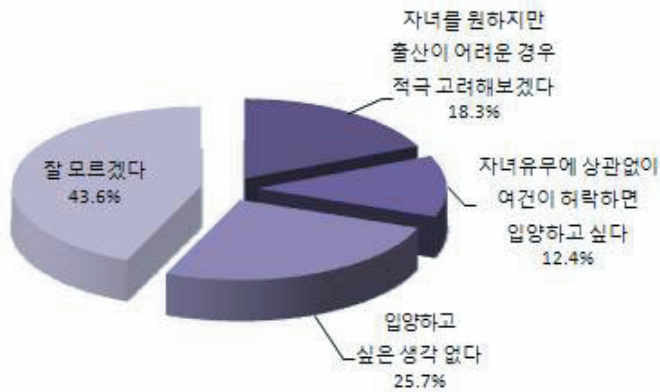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동의			반대	반대	
			전적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반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전 체	100.0	48.1	5.8	42.3	51.9	25.5	26.4
	남 자	100.0	53.1	7.4	45.8	46.9	23.0	23.9
	여 자	100.0	42.9	4.1	38.8	57.1	28.2	28.9
결혼생활은 당 사자보다 가족 관계가 우선이다	전 체	100.0	54.5	10.4	44.0	45.5	36.2	9.3
	남 자	100.0	55.6	11.6	44.1	44.4	35.7	8.6
	여 자	100.0	53.3	9.3	44.0	46.7	36.8	10.0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전 체	100.0	61.1	9.5	51.6	38.9	28.3	10.5
	남 자	100.0	64.6	8.5	56.1	35.4	26.5	8.9
	여 자	100.0	57.6	10.6	47.0	42.4	30.2	12.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전 체	100.0	27.3	3.6	23.6	72.7	30.6	42.1
	남 자	100.0	29.7	4.0	25.7	70.3	31.1	39.2
	여 자	100.0	24.8	3.3	21.5	75.2	30.1	45.1

27. 입양에 대한 견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5.7%로 가장 많음

-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8.3%,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2.4%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입양에 대한 견해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입양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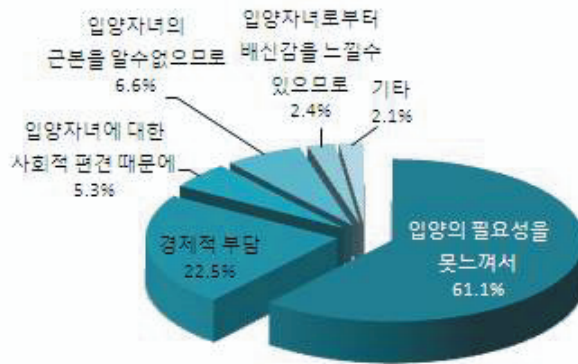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하면 입양하고 싶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18.3	12.4	25.7	43.6
15 - 19세	100.0	21.8	10.7	16.0	51.5
20 - 29세	100.0	20.8	13.7	24.5	40.9
30 - 39세	100.0	21.6	15.9	34.0	28.4
40 - 49세	100.0	18.7	17.4	28.8	35.1
50 - 59세	100.0	16.9	11.7	23.7	47.6
60세 이상	100.0	12.6	4.4	21.0	62.0
65세 이상	100.0	11.9	3.9	19.7	64.6
초졸 이하	100.0	9.2	4.2	16.9	69.6
중졸	100.0	15.1	7.4	22.3	55.3
고졸	100.0	18.4	14.1	27.8	39.7
대졸 이상	100.0	23.9	16.2	28.8	31.2

28.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라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음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22.5%, 「입양 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6.6%, 「입양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5.3% 순으로 나타남
-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라는 응답은 남자(64.4%)가 여자(57.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

구분	계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전체	100.0	61.1	22.5	5.3	6.6	2.4	2.1
남자	100.0	64.4	22.0	4.6	5.4	1.8	1.9
여자	100.0	57.5	23.1	6.1	8.0	3.0	2.2
15 - 19세	100.0	58.1	5.6	15.6	15.6	5.0	-
20 - 29세	100.0	72.0	16.2	2.6	6.8	2.4	-
30 - 39세	100.0	59.8	22.4	7.0	5.3	0.9	4.6
40 - 49세	100.0	61.5	29.5	3.6	2.7	-	2.8
50 - 59세	100.0	56.0	21.1	8.3	8.6	5.1	0.8
60세 이상	100.0	58.1	25.9	1.6	9.4	4.4	0.7
65세 이상	100.0	61.6	21.3	0.9	11.2	4.0	1.1

29. 분거가족의 국내·외 거주 여부 - 복수응답 (가구주)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해외 포함)에 살고 있는 가구주는 18.3%로 나타남

-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 가구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94.8%,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8.1%로 나타남
-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보면, '50대'(37.1%), '40대'(19.1%) 순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분거가족의 국내·외 거주 여부 - 복수응답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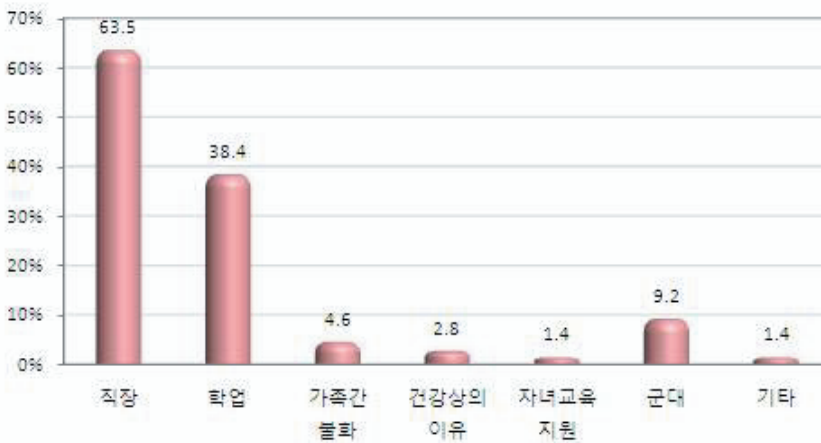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분거가족 있음	분거가족 있음			분거가족 없음
			소계	가구원이 국내 거주	가구원이 국외 거주	
전체	100.0	18.3	100.0	94.8	8.1	81.7
남자	100.0	17.7	100.0	93.8	8.6	82.3
여자	100.0	20.4	100.0	97.8	6.8	79.6
30-39세	100.0	4.3	100.0	83.0	17.0	95.7
40-49세	100.0	19.1	100.0	100.0	4.8	80.9
50-59세	100.0	37.1	100.0	97.7	5.2	62.9
60세 이상	100.0	16.0	100.0	86.4	15.5	84.0
취업	100.0	20.6	100.0	95.3	7.8	79.4
미취업	100.0	13.2	100.0	93.3	9.3	86.8

30. 분거가족의 분거이유 및 분거기간 -복수응답 (가구주)

다른 가구원들이 가구주와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직장(직업)」 때문이라는 경우가 6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분거이유로 「직장(직업)」 다음은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38.4%, 「군대」 9.2%, 「가족간의 불화(별거 등)」 4.6%,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 2.8% 순으로 나타남
- 분거가족의 분거기간은 「2-3년」이 3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년이상」이 26.0%로 많이 나타남



[표 49] 분거가족의 분거이유 -복수응답 (가구주)

(단위 : %)

구 분	계	직장	학업	가족간 불화	건강상 이유	자녀교육 지원	군대	기타
전 체	100.0	63.5	38.4	4.6	2.8	1.4	9.2	1.4
남 자	100.0	59.8	42.6	4.8	3.7	1.9	9.3	1.9
여 자	100.0	74.3	26.5	3.8	-	-	9.1	-

[표 50] 분거가족의 분거기간 -복수응답 (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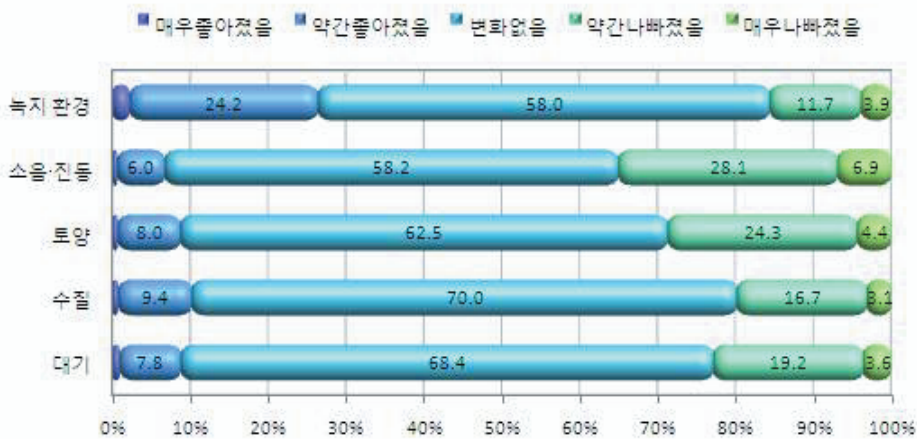
구 분	계	6개월미만	6-12개월	1-2년	2-3년	3-5년	5년이상
전 체	100.0	16.5	16.3	21.9	30.1	2.3	26.0
남 자	100.0	17.9	15.7	20.9	29.6	2.3	28.2
여 자	100.0	12.5	18.1	24.7	31.5	2.2	19.9

5 환경 부문

31. 1년 전과 비교한 체감환경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1년 전과 비교하여 가장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 + 「약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녹지환경’ 26.4%로 나타남

- ‘녹지환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환경 분야에서는 「나빠졌다」(「약간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 +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나빠졌다」(「약간 나빠졌다」 +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분야는 ‘소음·진동’ 35.0%로 나타남



[표 51] 1년 전과 비교한 체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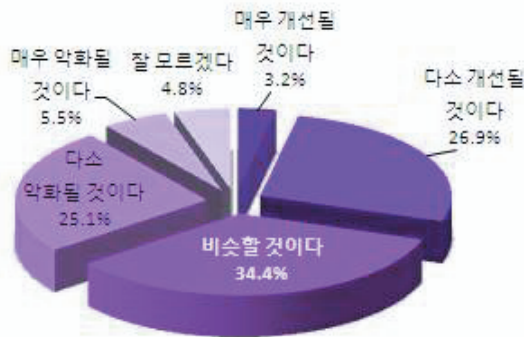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좋아졌음		변함없음	나빠졌음		
		매우	약간		약간	매우	
대기	100.0	8.8	7.8	68.4	22.8	19.2	3.6
수질	100.0	10.2	9.4	70.0	19.8	16.7	3.1
토양	100.0	8.8	8.0	62.5	28.7	24.3	4.4
소음·진동	100.0	6.8	6.0	58.2	35.0	28.1	6.9
녹지환경	100.0	26.4	24.2	58.0	15.6	11.7	3.9

32. 향후 환경상황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 상황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34.4%로 나타남

- 환경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 「다소 개선될 것이다」) 는 응답은 30.1%, 「악화될 것이다」 (「다소 악화될 것이다」 + 「매우 악화될 것이다」) 는 응답은 30.7%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향후 우리 나라의 환경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4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많고, 「개선될 것이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21.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 향후 환경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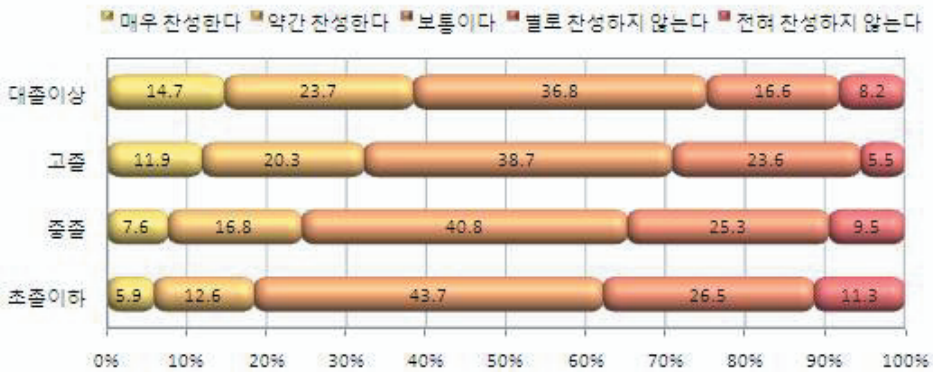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개선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매우	다소	매우		다소			
전체	100.0	30.1	3.2	26.9	34.4	30.7	25.1	5.5	4.8
남자	100.0	32.0	3.4	28.6	31.9	31.6	26.4	5.2	4.5
여자	100.0	28.2	3.0	25.2	37.0	29.7	23.8	5.9	5.1
15-19세	100.0	21.4	2.5	18.9	30.1	42.3	22.9	19.3	6.2
20-29세	100.0	32.2	3.5	28.7	32.4	29.3	26.5	2.8	6.1
30-39세	100.0	28.3	1.9	26.3	35.6	33.9	26.6	7.3	2.3
40-49세	100.0	30.7	4.4	26.3	33.7	30.3	25.4	4.9	5.3
50-59세	100.0	33.4	4.3	29.1	35.2	28.8	25.9	2.9	2.7
60세 이상	100.0	30.5	2.5	28.1	36.6	26.0	22.8	3.2	6.8
65세 이상	100.0	30.3	1.7	28.6	35.8	26.9	23.1	3.8	7.0

33. 환경보호부담금

환경보호를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약간 찬성한다」)하는 비율은 31.1%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약간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찬성하지 않는다」(「별로 찬성하지 않는다」+「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찬성한다」(「매우 찬성」+「약간 찬성」)는 의견은, 취업자(35.1%)가 미취업자(26.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 환경보호부담금¹⁾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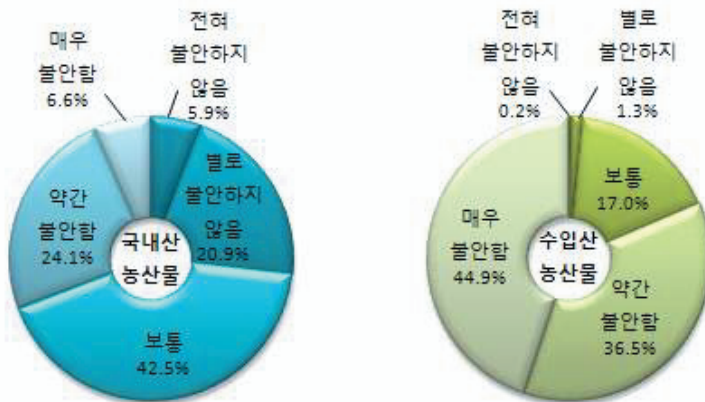
구 분	계	찬성함	찬성함		보통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매우	약간			별로	전혀
전 체	100.0	31.1	11.3	19.8	39.1	29.7	21.9	7.8
남 자	100.0	32.5	11.9	20.6	37.3	30.2	21.2	9.0
여 자	100.0	29.7	10.8	19.0	41.0	29.2	22.6	6.6
초 졸 이 하	100.0	18.4	5.9	12.6	43.7	37.8	26.5	11.3
중 졸	100.0	24.4	7.6	16.8	40.8	34.8	25.3	9.5
고 졸	100.0	32.2	11.9	20.3	38.7	29.1	23.6	5.5
대 졸 이 상	100.0	38.4	14.7	23.7	36.8	24.8	16.6	8.2
취 업	100.0	35.1	13.3	21.7	37.8	27.1	19.3	7.8
미 취 업	100.0	26.7	9.1	17.6	40.6	32.7	24.8	7.9

주 1) 환경보호부담금 : 환경의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처리비용을 부담

34.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농약오염으로 인한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불안」(「약간 불안」+「매우 불안」)은 81.4%,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불안」은 30.8%로 나타남

- 수입산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이 모두 농약오염에 대해 「불안하다」(「약간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는 응답률이 「불안하지 않다」(「전혀 불안하지 않다」+「별로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수입산 농산물이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률은 44.9%에 달하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불안 정도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가 남자보다 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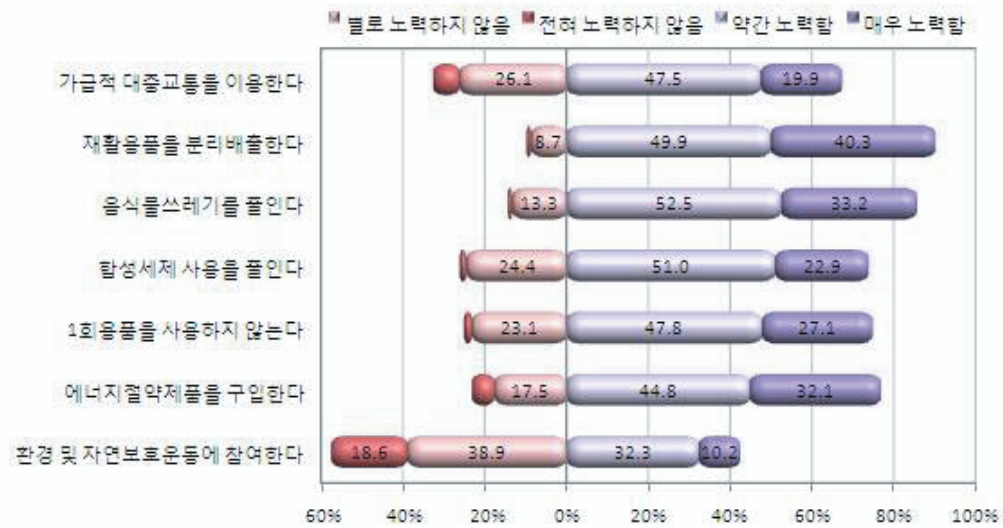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불안하지 않음	불안하다		보통	불안함	약간	매우
			전혀	별로				
국내산농산물	100.0	26.8	5.9	20.9	42.5	30.8	24.1	6.6
남자	100.0	27.7	5.9	21.8	43.5	28.9	23.2	5.7
여자	100.0	25.8	5.8	20.0	41.4	32.7	25.1	7.6
수입산농산물	100.0	1.6	0.2	1.3	17.0	81.4	36.5	44.9
남자	100.0	1.8	0.3	1.4	21.0	77.2	35.2	42.0
여자	100.0	1.4	0.2	1.2	12.9	85.7	37.9	47.8

35. 환경오염 방지 노력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기 위해 「노력한다」(「약간 노력한다」+「매우 노력한다」)는 응답이 90.3%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중 가장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도가 가장 부족한 분야는 ‘환경 및 자연보호 운동에 참여한다’로 「노력하지 않는다」(「별로 노력하지 않는다」+「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5] 환경오염 방지 노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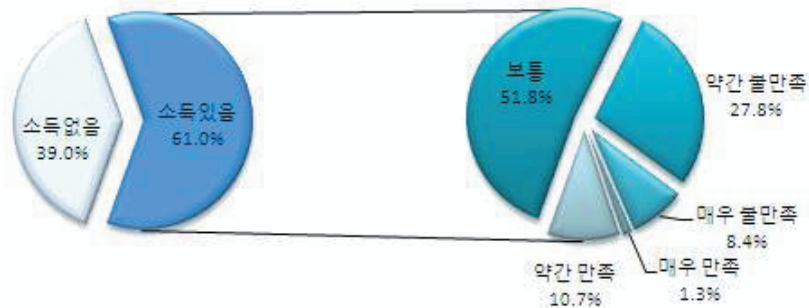
구분	계	노력함		노력하지 않음			
		매우	약간	별로	전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100.0	67.4	19.9	47.5	32.6	26.1	6.6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다	100.0	90.3	40.3	49.9	9.7	8.7	1.1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100.0	85.7	33.2	52.5	14.3	13.3	1.1
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	100.0	73.9	22.9	51.0	26.1	24.4	1.7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100.0	74.9	27.1	47.8	25.1	23.1	2.0
에너지절약제품을 구입한다	100.0	76.9	32.1	44.8	23.1	17.5	5.6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한다	100.0	42.5	10.2	32.3	57.5	38.9	18.6

6 소득과 소비 부문

36. 소득만족도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1.8%,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36.3%,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12.0%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소득에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하는 비율이 13.3%로 여자(9.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6] 소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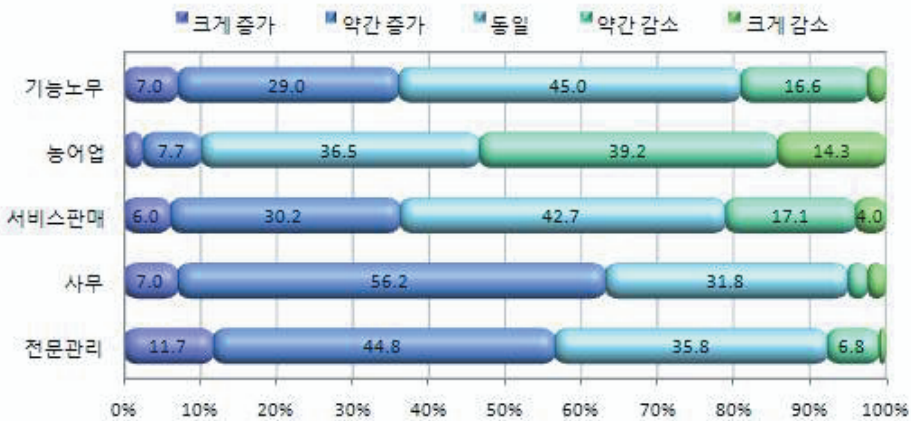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소득 있음	만족				불만족				소득 없음
			소계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2009년>	100.0	59.3	100.0	18.0	2.5	15.6	33.3	48.7	28.2	20.5	40.7
<2010년>	100.0	61.0	100.0	12.0	1.3	10.7	51.8	36.3	27.8	8.4	39.0
남자	100.0	75.5	100.0	13.3	1.3	12.0	51.0	35.7	27.6	8.1	24.5
여자	100.0	46.2	100.0	9.9	1.4	8.5	52.9	37.2	28.3	8.9	53.8
초졸이하	100.0	40.5	100.0	7.3	-	7.3	38.5	54.2	43.5	10.8	59.5
중졸	100.0	56.5	100.0	5.8	0.8	5.0	51.3	42.8	29.3	13.6	43.5
고졸	100.0	60.9	100.0	11.2	1.7	9.5	50.7	38.0	30.8	7.3	39.1
대졸이상	100.0	72.7	100.0	15.6	1.4	14.2	56.5	27.9	20.4	7.5	27.3

37.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있는 사람)

소득있는 사람은 장래에 본인의 소득에 대해 「동일」 할 것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장래에 소득이 「증가」(「크게 증가」+「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소득이 「감소」(「약간 감소」+「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농어업직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4%로 높게 나타남



[표 57]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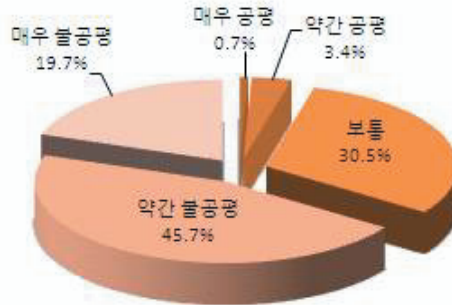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증가		동일	감소		계	
		크게	약간		약간	크게		
<2009년>	100.0	34.8	4.0	30.8	37.2	27.9	19.1	8.8
<2010년>	100.0	38.5	6.9	31.6	41.4	20.1	15.9	4.2
초 졸 이 하	100.0	9.7	1.5	8.3	44.3	46.0	34.1	11.9
중 졸	100.0	16.6	2.9	13.7	61.0	22.4	18.4	4.0
고 졸	100.0	35.5	5.8	29.7	43.2	21.3	16.9	4.4
대 졸 이 상	100.0	55.0	10.4	44.6	33.9	11.2	9.3	1.9
전 문 관 리	100.0	56.5	11.7	44.8	35.8	7.7	6.8	0.9
사 무	100.0	63.1	7.0	56.2	31.8	5.0	2.6	2.4
서 비 스 판 매	100.0	36.2	6.0	30.2	42.7	21.1	17.1	4.0
농 어 업	100.0	10.0	2.4	7.7	36.5	53.4	39.2	14.3
기 능 노 무	100.0	36.0	7.0	29.0	45.0	19.1	16.6	2.5

38.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가구주)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빈부격차 등)에 대한 가구주의 생각은 「불공평」(「약간 불공평」+「매우 불공평」)이 65.5%로 가장 많음

-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빈부격차 등)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는 30.5%, 「공평」(「매우 공평」+「약간 공평」)하다는 가구주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사회의 소득분배에 대해 「불공평」(「약간 불공평」+「매우 불공평」)하다는 응답률은 67.3%로,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5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8]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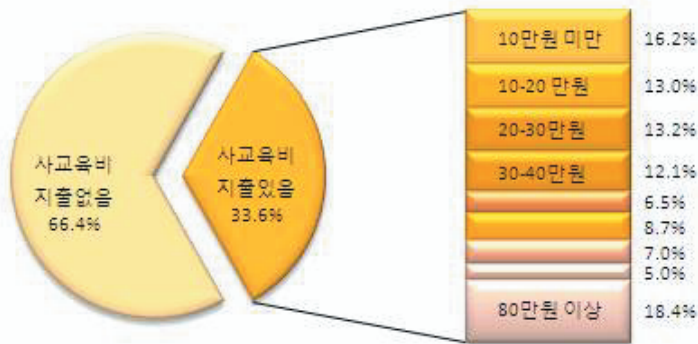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공평			보통	불공평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전 체	100.0	4.0	0.7	3.4	30.5	65.5	45.7	19.7
남 자	100.0	4.0	0.7	3.2	28.7	67.3	47.5	19.9
여 자	100.0	4.2	0.5	3.7	36.5	59.3	40.1	19.3
20-29세	100.0	8.8	-	8.8	18.4	72.8	50.7	22.1
30-39세	100.0	2.4	-	2.4	32.8	64.8	36.8	27.9
40-49세	100.0	3.3	1.4	1.9	26.2	70.5	54.5	16.0
50-59세	100.0	5.3	1.6	3.7	28.8	65.9	45.1	20.7
60세 이상	100.0	3.6	-	3.6	36.2	60.1	43.8	16.3
65세 이상	100.0	3.8	-	3.8	37.6	58.6	41.6	17.1

39. 사교육비 (가구주)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는 33.6%로 2009년 37.6%에 비하여 4.0%p 하락함

-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는 2009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비율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9] 사교육비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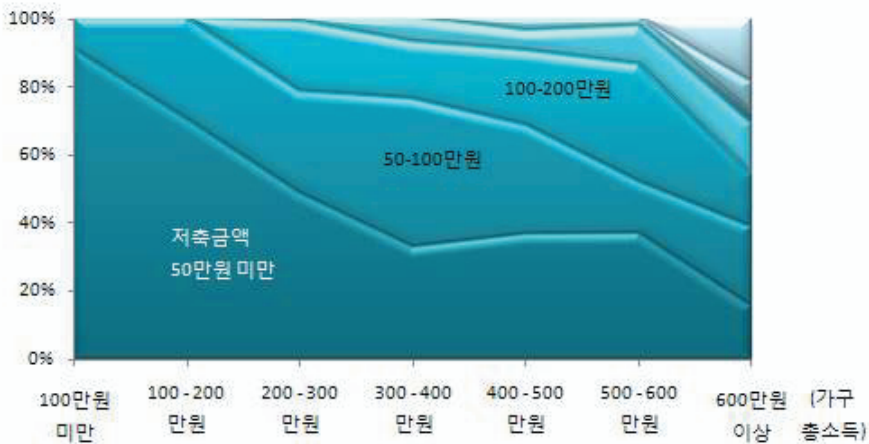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사교육비지출 있음	사교육비지출 있음											사교육비지출 없음
			소계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60만원	60-70만원	70-80만원	80만원 이상		
<2009년>	100.0	37.6	100.0	20.8	14.8	14.4	11.1	12.2	6.0	2.3	4.8	13.4	62.4	
<2010년>	100.0	33.6	100.0	16.2	13.0	13.2	12.1	6.5	8.7	7.0	5.0	18.4	66.4	
초졸이하	100.0	7.9	100.0	39.0	17.3	27.5	-	8.1	-	8.1	-	-	92.1	
중졸	100.0	14.8	100.0	45.1	7.1	10.8	-	-	11.7	9.8	-	15.5	85.2	
고졸	100.0	42.8	100.0	14.3	16.2	10.9	16.4	8.1	7.6	5.6	4.1	16.6	57.2	
대졸이상	100.0	47.3	100.0	12.0	9.9	14.3	10.4	5.5	10.3	7.9	7.0	22.7	52.7	
100만원미만	100.0	8.7	100.0	32.3	26.2	8.0	19.5	-	-	4.4	4.3	5.3	91.3	
100-200만원	100.0	35.8	100.0	31.0	19.1	16.4	5.5	6.3	6.6	3.0	1.6	10.4	64.2	
200-300만원	100.0	49.4	100.0	8.7	10.1	14.9	15.0	7.0	11.7	10.1	2.2	20.4	50.6	
300-400만원	100.0	53.5	100.0	5.3	8.8	10.1	15.7	8.3	3.0	12.5	15.8	20.6	46.5	
400-500만원	100.0	54.3	100.0	15.8	9.0	12.2	11.3	-	23.9	5.3	5.3	17.3	45.7	
500-600만원	100.0	67.2	100.0	6.7	-	16.0	14.5	8.0	16.0	-	14.5	24.3	32.8	
600만원이상	100.0	60.9	100.0	7.0	9.4	5.0	5.0	14.9	3.4	5.3	5.0	44.9	39.1	

40. 저축 (가구주)

「저축있는」 가구의 월평균 총 저축액은 「50만원 미만」 이 54.4%를 차지함

-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저축있는」 비율이 59.2%로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39.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총소득이 많을수록 「저축있는」 비율이 높고, 저축금액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0] 저축 (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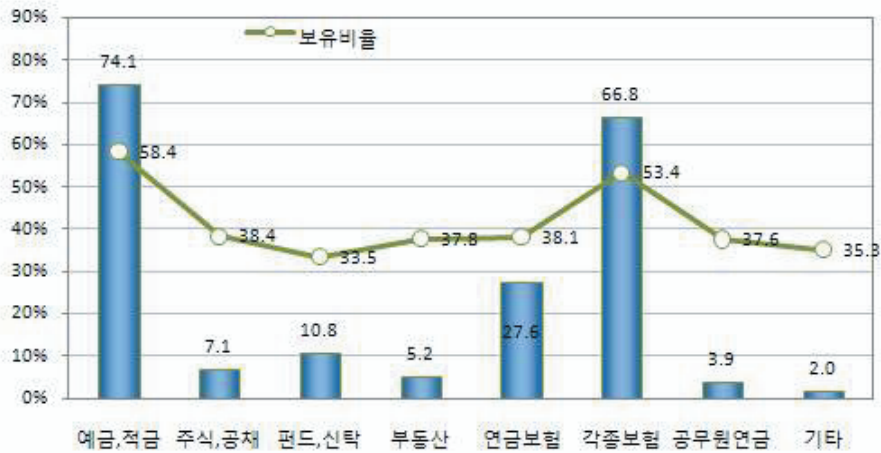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저축 있음	저축 금액								저축 없음
			소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500 만원	500만원 이상	
<2009년>	100.0	53.7	100.0	57.2	25.9	12.1	2.2	1.1	0.7	0.7	46.4
<2010년>	100.0	54.6	100.0	54.4	27.7	12.4	3.0	0.6	0.6	1.3	45.4
남 자	100.0	59.2	100.0	54.5	27.7	12.7	2.3	0.4	0.8	1.6	40.8
여 자	100.0	39.2	100.0	53.7	27.3	11.0	6.6	1.4	-	-	60.8
100만원미만	100.0	22.5	100.0	90.8	9.2	-	-	-	-	-	77.5
100-200만원	100.0	55.1	100.0	70.3	29.7	-	-	-	-	-	44.9
200-300만원	100.0	74.8	100.0	48.8	29.9	20.3	1.0	-	-	-	25.2
300-400만원	100.0	86.6	100.0	33.1	43.3	16.6	7.0	-	-	-	13.4
400-500만원	100.0	88.4	100.0	36.9	31.9	21.7	5.7	3.8	-	-	11.6
500-600만원	100.0	87.2	100.0	37.1	15.3	34.1	11.1	2.4	-	-	12.8
600만원이상	100.0	91.4	100.0	15.7	23.4	15.3	14.8	3.3	9.0	18.5	8.6

41. 저축수단 - 복수응답 (가구주)

군산시민의 가구주가 이용하는 저축 수단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적금」 74.1%, 「생명보험 등 각종보험」 66.8%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저축수단 또한 「예금·적금」 58.4%, 「생명보험 등 각종보험」 53.4% 순으로 나타남
- 2009년에 비해 저축수단으로 「예금·적금」,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 각종보험」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



[표 61] 저축수단 - 복수응답 (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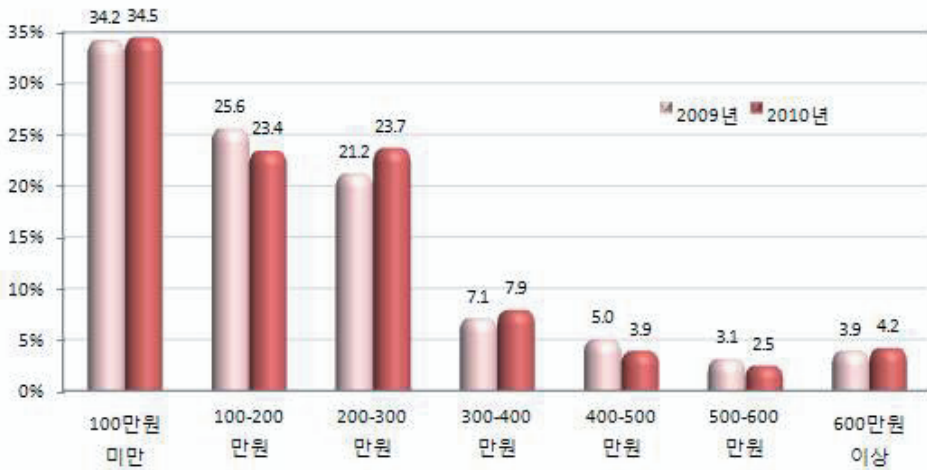
구분	계	예금, 적금 (보유비율) ¹⁾	주식, 공채 (보유비율)	펀드, 신탁 (보유비율)	부동산 (보유비율)	연금보험 (보유비율)	각종보험 (보유비율)	공무원연금 (보유비율)	기타 (보유비율)
<2009년>	100.0	69.9 (67.3)	9.8 (33.9)	13.1 (35.5)	7.7 (51.8)	20.5 (45.0)	54.6 (55.1)	4.1 (29.8)	0.9 (56.2)
<2010년>	100.0	74.1 (58.4)	7.1 (38.4)	10.8 (33.5)	5.2 (37.8)	27.6 (38.1)	66.8 (53.4)	3.9 (37.6)	2.0 (35.3)
남자	100.0	74.9 (58.3)	7.6 (37.8)	10.6 (35.8)	5.4 (38.8)	26.8 (39.6)	65.2 (53.3)	4.2 (34.3)	2.0 (34.0)
여자	100.0	70.3 (58.8)	4.3 (43.8)	12.2 (23.5)	4.5 (32.1)	31.4 (31.7)	74.8 (53.7)	2.0 (73.3)	2.0 (41.5)

주 1) 보유비율 : 해당 저축수단의 평균 보유비율

42. 월 평균 총 가구소득 (가구주)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100-200만원」과 「200-300만원」이 47.1%를 차지함

-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직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인 경우와 사무직인 경우,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이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 월 평균 총 가구소득 (가구주)

(단위 : %)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
<2009년>	100.0	34.2	25.6	21.2	7.1	5.0	3.1	3.9
<2010년>	100.0	34.5	23.4	23.7	7.9	3.9	2.5	4.2
남자	100.0	25.5	25.4	28.1	9.1	4.1	2.8	4.9
여자	100.0	64.2	16.9	8.9	3.7	3.2	1.3	1.8
전문관리	100.0	7.2	18.5	29.8	15.5	11.4	5.3	12.3
사무	100.0	9.0	17.1	43.2	13.1	8.9	4.7	4.0
서비스판매	100.0	19.8	30.4	28.7	8.1	6.1	1.2	5.8
농어업	100.0	47.8	29.0	15.0	4.4	1.3	1.1	1.3
기능노무	100.0	16.4	28.2	30.9	11.8	3.4	3.6	5.6

7 지역 부문

43. 시정관심도

군산시민의 시정관심도는 「관심있음」(「매우 관심있음」+「약간 관심있음」) 18.5%로 2009년 28.6%에 비해 10.1%p 하락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취업자보다 취업자가, 군산시정에 대해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정에 가장 「관심있는」(「매우 관심있음」+「약간 관심있음」) 연령대는 ‘50대’와 ‘40대’, 가장 「관심없는」(「별로 관심없음」+「전혀 관심없음」) 연령대는 ‘10대’로 나타남



[표 63] 시정관심도

(단위 : %)

구분	계	관심있음			보통	관심없음		
		매우	약간	별로		전혀		
<2009년>	100.0	28.6	7.1	21.5	40.3	31.1	20.7	10.4
<2010년>	100.0	18.5	5.1	13.3	38.6	42.9	31.0	11.9
15-19세	100.0	8.3	1.6	6.7	31.3	60.4	36.5	23.9
20-29세	100.0	12.3	1.3	11.1	43.0	44.7	33.0	11.6
30-39세	100.0	19.0	4.0	15.0	40.9	40.1	30.7	9.4
40-49세	100.0	23.8	9.2	14.5	41.2	35.1	27.7	7.4
50-59세	100.0	24.4	8.0	16.4	40.3	35.3	26.4	8.9
60세 이상	100.0	17.2	4.5	12.6	32.1	50.7	34.2	16.5
65세 이상	100.0	13.0	3.1	9.9	30.3	56.7	36.4	20.3
초졸 이하	100.0	9.0	1.7	7.3	32.5	58.6	37.9	20.6
중졸	100.0	18.9	5.8	13.1	35.0	46.1	33.5	12.6
고졸	100.0	17.0	5.1	11.9	39.3	43.7	33.3	10.3
대졸 이상	100.0	24.7	6.7	18.0	42.2	33.1	24.0	9.1

44. 지역문화행사 참여도 -복수응답

1년간 군산시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시민의 비율은 54.8%로 2009년 69.9%에 비해 15.1%p 하락하였으나, 각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이, 각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은 「벚꽃 예술제」를 제외하고, 2009년에 비해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지역문화행사에 참여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4] 지역문화행사 참여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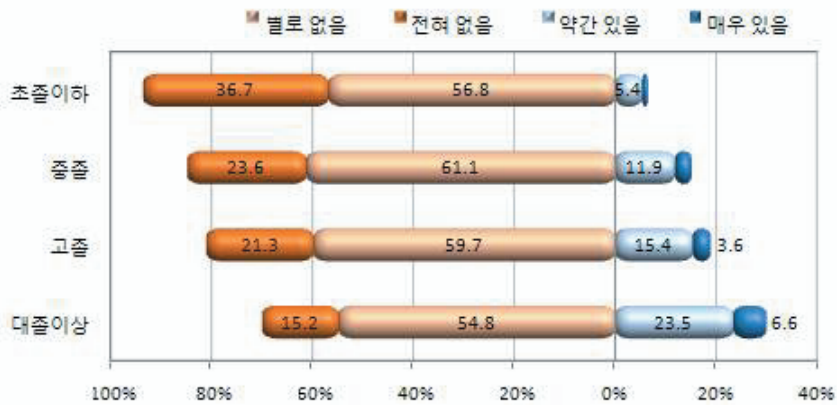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참여 경험 있음	소계	벚꽃 예술제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공연	군산 새만금 에어쇼	군산 세계철새축제	해넘이, 해맞이 축제	수산물 축제	공당보리축제	참여 경험 없음
<2009년>	100.0	69.9	100.0	77.2	14.4	11.0	14.4	26.8	9.5	37.9	14.6	30.1
<2010년>	100.0	54.8	100.0	72.2	14.5	13.9	16.9	29.1	10.9	39.1	14.8	45.2
남자	100.0	56.3	100.0	73.8	17.8	11.8	20.0	31.5	11.4	40.1	14.7	43.7
여자	100.0	53.3	100.0	70.6	10.9	16.2	13.5	26.6	10.4	37.9	14.8	46.7
초졸이하	100.0	31.5	100.0	74.8	10.4	3.1	9.6	22.6	5.0	35.4	13.6	68.5
중졸	100.0	47.7	100.0	72.3	14.4	3.9	10.1	21.0	8.2	45.4	10.2	52.3
고졸	100.0	58.6	100.0	73.2	14.6	13.9	14.4	27.8	11.4	40.3	15.3	41.4
대졸이상	100.0	64.4	100.0	70.5	15.4	19.0	22.9	34.1	12.5	37.2	15.6	35.6

45. 시정정책관심도

시정(시민참여예산제도, 시민제안제도 등)에 참여 의사가 「있다」(「매우 있음」+「약간 있음」)고 응답한 비율은 20.2%로 나타남

- 시정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이 시정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에게 시정참여를 추천할 의사 정도는 평균 5.9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시정 참여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5] 시정정책관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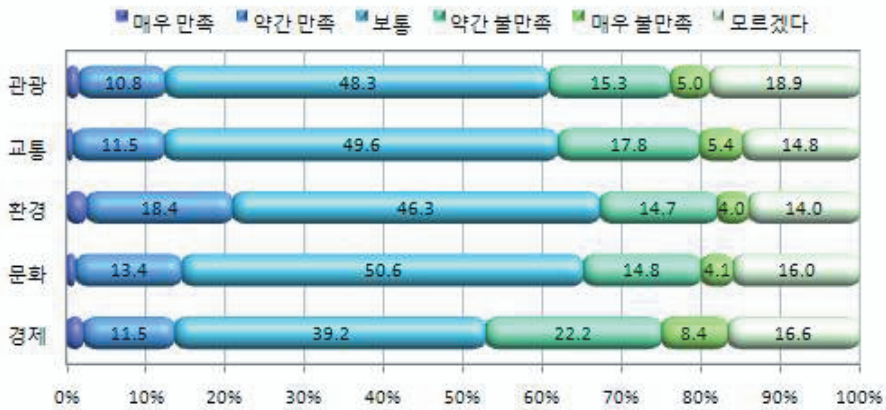
구분	계	시정참여 의사 있음 (시정참여 추천의사) ¹⁾		시정참여 의사 없음		별로	전혀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전체	100.0	20.2	(5.9)	4.2	16.0	79.8	57.7	22.1
남자	100.0	24.0	(5.9)	5.4	18.7	76.0	56.6	19.4
여자	100.0	16.3	(6.0)	3.0	13.4	83.7	58.9	24.8
초졸이하	100.0	6.5	(5.5)	1.2	5.4	93.5	56.8	36.7
중졸	100.0	15.2	(6.2)	3.3	11.9	84.8	61.1	23.6
고졸	100.0	19.0	(5.9)	3.6	15.4	81.0	59.7	21.3
대졸이상	100.0	30.1	(6.0)	6.6	23.5	69.9	54.8	15.2
취업	100.0	25.1	(6.1)	6.1	19.1	74.9	57.3	17.6
미취업	100.0	14.7	(5.7)	2.1	12.7	85.3	58.2	27.1

주 1) 시정참여 추천의사 : 0 - 10 까지의 평균

46. 시정에 대한 만족도

군산시민의 시정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환경분야'로, 21.0%가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함

- 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정에 대해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분야' 31.0%, '경제분야' 30.5%, '행정분야' 27.7%, '교육분야' 25.6% 순으로 나타남



[표 66] 시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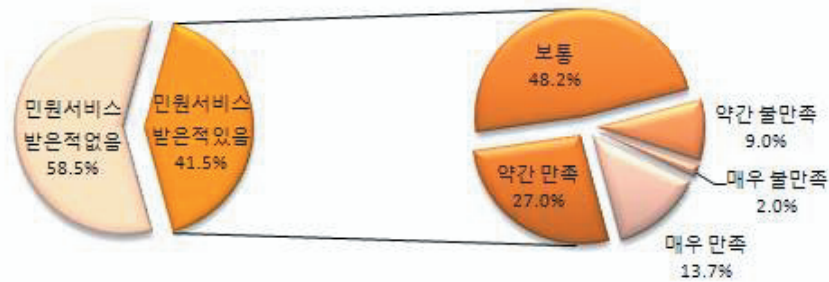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르겠다	
		매우	약간		약간	매우			
경제분야	100.0	13.6	2.2	11.5	39.2	30.5	22.2	8.4	16.6
문화분야	100.0	14.5	1.2	13.4	50.6	18.9	14.8	4.1	16.0
복지분야	100.0	11.5	0.7	10.8	43.1	31.0	24.8	6.2	14.5
환경분야	100.0	21.0	2.6	18.4	46.3	18.7	14.7	4.0	14.0
교통분야	100.0	12.3	0.9	11.5	49.6	23.2	17.8	5.4	14.8
교육분야	100.0	8.5	0.8	7.8	46.9	25.6	19.8	5.8	19.0
관광분야	100.0	12.5	1.6	10.8	48.3	20.3	15.3	5.0	18.9
행정분야	100.0	5.6	0.6	4.9	41.1	27.7	20.4	7.3	25.6

47. 민원서비스 만족도

공공기관에서 받은 민원서비스(온라인서비스 포함)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고,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하는 비율은 40.7%로 나타남

- 2009년에 비해 군산시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7] 민원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계	민원서비스 받은적있음	민원서비스 받은적있음								민원서비스 받은적없음
			소계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2009년>	100.0	58.0	100.0	42.8	16.8	26.0	42.6	14.5	10.9	3.7	42.0
<2010년>	100.0	41.5	100.0	40.7	13.7	27.0	48.2	11.1	9.0	2.0	58.5
남자	100.0	42.0	100.0	41.6	15.4	26.3	47.5	10.9	7.8	3.0	58.0
여자	100.0	40.9	100.0	39.7	12.0	27.8	48.9	11.3	10.3	1.0	59.1
15-19세	100.0	16.7	100.0	25.1	5.4	19.8	74.9	-	-	-	83.3
20-29세	100.0	36.8	100.0	28.3	7.3	21.0	54.5	17.2	10.7	6.5	63.2
30-39세	100.0	48.3	100.0	36.1	8.2	27.9	46.4	17.6	15.6	2.0	51.7
40-49세	100.0	48.7	100.0	40.1	11.2	28.9	50.4	9.5	8.3	1.2	51.3
50-59세	100.0	46.5	100.0	44.1	20.9	23.2	48.1	7.7	6.4	1.3	53.5
60세 이상	100.0	37.4	100.0	56.3	23.1	33.2	38.2	5.5	4.7	0.8	62.6
65세 이상	100.0	34.2	100.0	54.3	24.0	30.3	41.0	4.7	4.1	0.6	65.8

48. 민원서비스 불만 이유 - 복수응답

민원서비스(온라인서비스 포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47.5%, 「시간이 오래 걸린다」 37.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불친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40대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8] 민원서비스 불만 이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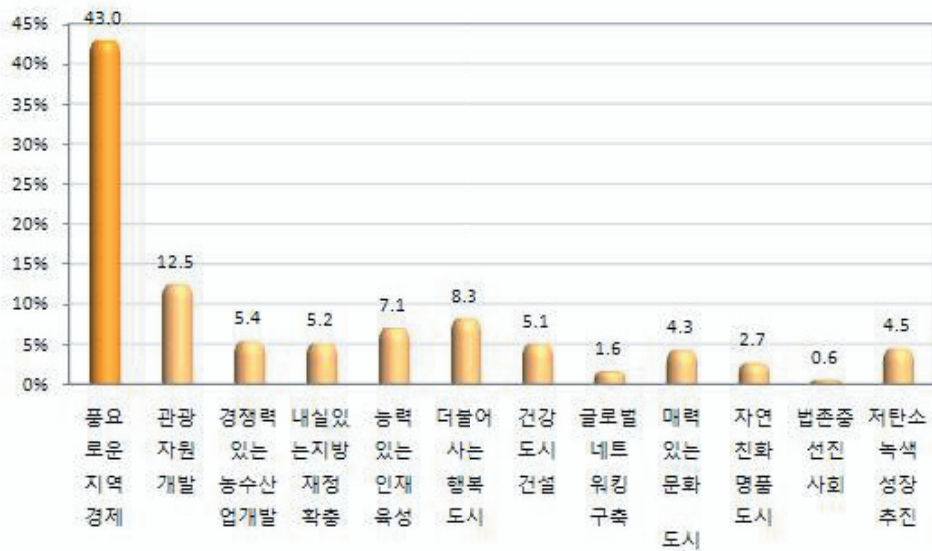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불친절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공정하지 못하다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편의시설 등이 미비하다	기타
<2009년>	100.0	45.3	42.8	47.0	10.2	20.2	3.5	1.8
<2010년>	100.0	53.2	37.7	47.5	11.9	22.7	9.2	1.5
남자	100.0	57.3	44.9	53.0	11.9	19.6	6.9	1.5
여자	100.0	49.1	30.4	42.0	12.0	25.8	11.6	1.5
20-29세	100.0	83.6	36.5	17.6	10.1	16.4	8.2	-
30-39세	100.0	63.9	33.1	47.1	6.6	36.8	13.5	-
40-49세	100.0	35.5	53.3	77.5	23.3	5.6	5.6	-
50-59세	100.0	10.7	32.8	55.4	15.8	15.2	-	-
60세 이상	100.0	34.4	31.6	46.2	7.8	29.6	15.2	16.4
65세 이상	100.0	27.3	39.5	51.8	-	18.8	27.3	29.4

49. 역점 추진 사업

군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풍요로운 지역경제」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음

- 「풍요로운 지역경제」 다음으로 군산시민이 원하는 역점 추진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12.5%, 「더불어사는 행복도시」 8.3%, 「능력있는 인재 육성」 7.1% 순으로 나타남



[표 69] 역점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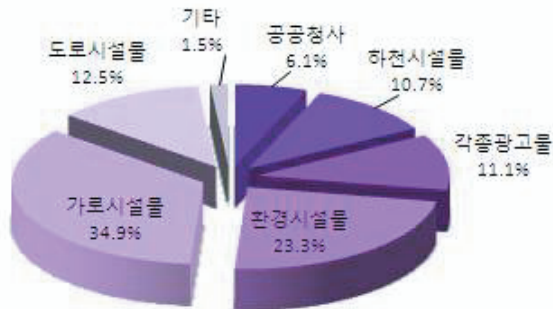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풍요로운 지역경제	관광자원 개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개발	내실있는 지방재정 확충	능력있는 인재 육성	더불어사는 행복도시	건강도시 건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매력있는 문화도시	자연친화 명품도시	법존중 선진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체	100.0	43.0	12.5	5.4	5.2	7.1	8.3	5.1	1.6	4.3	2.7	0.6	4.5
남자	100.0	41.8	14.7	5.5	5.4	6.7	7.9	4.5	2.5	3.0	2.8	0.7	4.4
여자	100.0	44.2	10.2	5.2	4.9	7.4	8.6	5.7	0.7	5.5	2.5	0.4	4.6
15 - 19세	100.0	27.2	11.2	2.5	1.6	12.9	9.5	6.0	0.8	20.9	3.2	-	4.3
20 - 29세	100.0	36.3	14.8	1.8	6.4	6.2	7.4	6.8	2.2	8.5	5.1	0.5	3.8
30 - 39세	100.0	45.8	12.7	2.9	5.4	7.7	8.9	3.7	1.7	1.4	1.5	0.9	7.3
40 - 49세	100.0	45.2	11.0	5.5	5.4	6.7	9.4	3.7	1.1	2.6	3.6	0.8	5.0
50 - 59세	100.0	47.5	14.5	7.1	4.9	6.0	6.8	3.1	2.9	1.4	1.2	0.4	4.1
60세 이상	100.0	45.9	10.9	10.2	5.4	5.9	7.8	7.6	0.9	1.0	1.8	0.4	2.1
65세 이상	100.0	46.3	9.0	10.0	4.9	7.3	8.5	8.6	1.3	0.6	1.4	0.2	1.9

50. 공공시설 디자인

군산시 공공시설물 중 디자인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야 할 주된 시설물은 「가로시설물(가로등, 버스승강장, 가판대 등)」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로시설물(가로등, 버스승강장, 가판대 등)」 다음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경시설물(공중화장실 등)」 23.3%, 「도로시설물(교량, 육교 등)」 12.5%, 「각종광고물(간판, 전광판, 현수막 게시대 등)」 11.1% 순으로 나타남



[표 70] 공공시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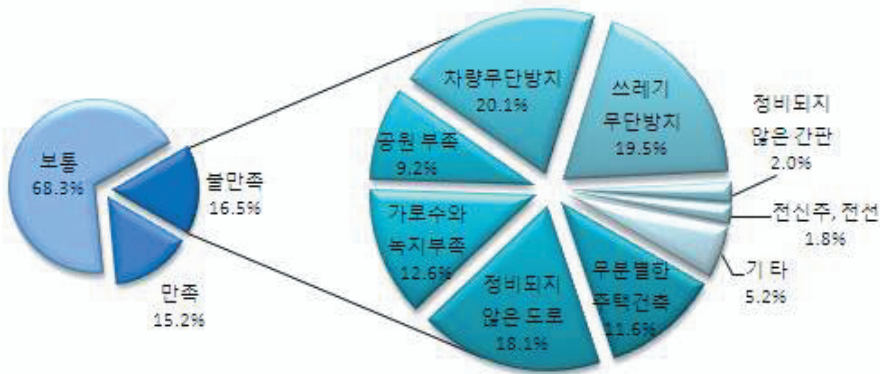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공공청사	하천 시설물	각종 광고물	환경 시설물	가로 시설물	도로 시설물	기타
전체	100.0	6.1	10.7	11.1	23.3	34.9	12.5	1.5
남자	100.0	6.6	11.1	11.1	20.9	34.0	14.7	1.5
여자	100.0	5.5	10.2	11.1	25.7	35.7	10.3	1.5
15 - 19세	100.0	8.5	7.7	7.6	33.8	31.3	11.2	-
20 - 29세	100.0	8.7	6.9	8.3	27.0	34.3	13.5	1.2
30 - 39세	100.0	3.6	11.1	12.0	23.3	37.1	11.2	1.7
40 - 49세	100.0	6.5	11.4	14.0	21.0	35.3	10.8	1.0
50 - 59세	100.0	5.8	13.8	11.7	20.0	33.3	13.4	1.9
60세 이상	100.0	5.2	11.1	10.5	20.9	35.5	14.4	2.4
65세 이상	100.0	5.3	11.5	9.3	23.0	36.1	11.7	3.1

51. 도시경관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거주지역 도시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거주지역 도시경관에 대해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는 사람은 16.5%로 나타남
-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차량 무단방치, 불법주정차」가 2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쓰레기 무단방치」19.5%, 「정비되지 않은 도로」18.1% 순으로 나타남



[표 71] 도시경관 만족도

(단위 : %)

구 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전 체	100.0	1.9	13.3	68.3	16.5	13.6	3.0	
남 자	100.0	1.7	13.6	67.7	17.1	14.0	3.1	
여 자	100.0	2.1	13.0	68.9	16.0	13.1	2.8	

[표 72] 도시경관에 불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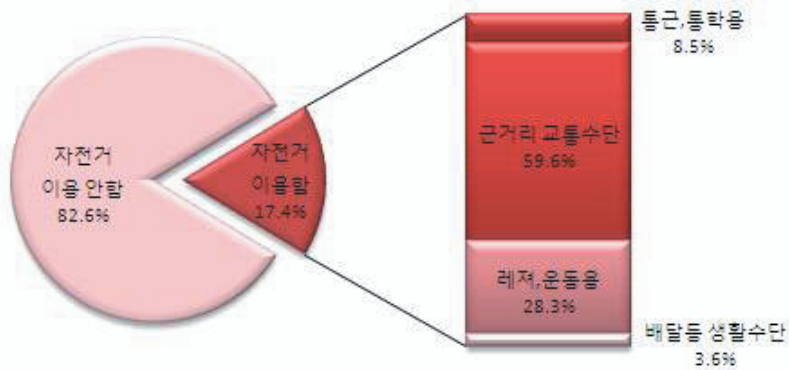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우분별한 주택건축	정비되지 않은도로	가로수와 녹지부족	공원 부족	차량무단 방치	쓰레기 무단방치	정비되지 않은간판	전신주, 전선	기 타
남 자	100.0	11.3	21.2	10.5	9.8	17.6	19.9	2.1	2.8	4.8
여 자	100.0	11.8	14.7	14.9	8.6	22.7	19.0	1.9	0.8	5.6

52. 자전거 이용 여부 및 용도

군산시민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17.4%이며, 주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59.6%로 가장 많음

-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자(11.0%)보다 남자(23.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 이용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어업직’으로 30.8%이며, 주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87.3%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73] 자전거 이용 여부 및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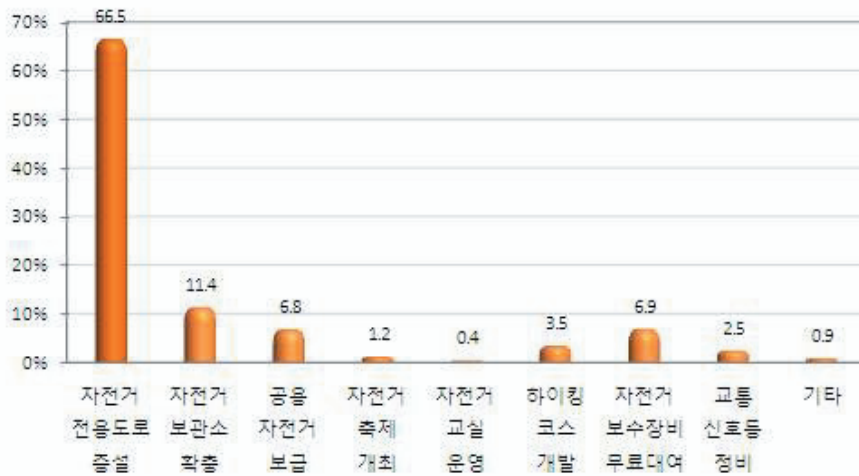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자전거 이용함	자전거 이용 용도						자전거 이용안함
			소계	통근, 통학용	근거리 교통수단	레저, 운동용	배달 등 생활수단	기타	
전 체	100.0	17.4	100.0	8.5	59.6	28.3	3.6	-	82.6
남 자	100.0	23.6	100.0	8.5	61.2	27.6	2.8	-	76.4
여 자	100.0	11.0	100.0	8.5	56.2	29.8	5.5	-	89.0
전 문 관 리	100.0	16.9	100.0	3.0	40.0	56.9	-	-	83.1
사 무	100.0	9.9	100.0	6.7	39.2	44.4	9.8	-	90.1
서 비 스 판 매	100.0	15.2	100.0	14.3	57.7	22.0	6.1	-	84.8
농 어 업	100.0	30.8	100.0	-	87.3	2.1	10.6	-	69.2
기 능 노 무	100.0	22.1	100.0	15.6	54.5	28.0	2.0	-	77.9
취 업	100.0	19.2	100.0	10.6	57.7	27.3	4.3	-	80.8
미 취 업	100.0	15.3	100.0	5.5	62.2	29.6	2.7	-	84.7

5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66.5%는 「자전거 전용도로 증설」 하는 것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 「자전거 전용도로 증설」 다음으로 필요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자전거 보관소 확충」 11.4%, 「자전거 보수장비 무료대여」 6.9%, 「공용자전거 보급」 6.8% 순으로 나타남



[표 7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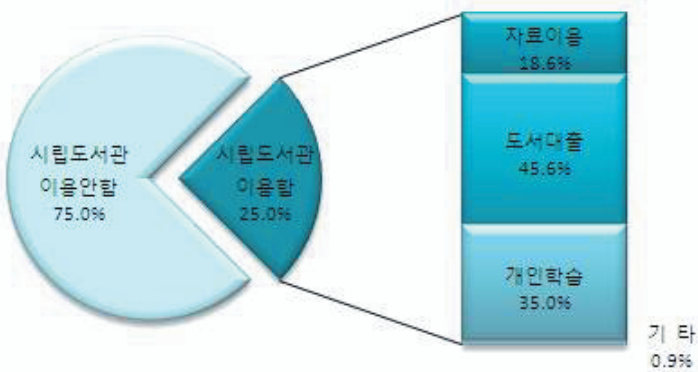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자전거 전용도로 증설	자전거 보관소 확충	공용 자전거 보급	자전거 축제 개최	자전거 교실 운영	하이킹 코스 개발	자전거 보수장비 무료대여	교통 신호등 정비	기타
전체	100.0	66.5	11.4	6.8	1.2	0.4	3.5	6.9	2.5	0.9
남자	100.0	63.2	11.0	8.5	1.8	0.6	3.6	7.9	2.0	1.3
여자	100.0	73.6	12.1	3.1	-	-	3.2	4.6	3.4	-
전문관리사	100.0	60.2	12.3	14.5	-	-	4.5	-	8.5	-
사무서비스판매	100.0	76.5	10.1	-	-	-	6.7	6.7	-	-
농어업	100.0	58.0	11.3	8.0	-	2.6	-	10.2	6.8	3.1
기능노무	100.0	64.9	5.2	6.3	-	-	1.5	18.5	3.7	-
취업	100.0	68.4	9.4	7.9	3.1	-	4.8	5.6	0.9	-
취미취업	100.0	65.4	9.5	8.0	1.4	0.5	3.4	7.8	3.4	0.6
미취업	100.0	68.0	14.0	5.1	1.0	0.3	3.6	5.6	1.1	1.3

54. 시립도서관 이용 여부 및 목적

시립도서관을 이용한 적 있는 군산시민은 25.0%이며, 그중 「도서대출」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45.6%로 가장 많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주 이용 목적은 「도서대출」인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10대와 20대는 「개인학습」이 주 이용 목적인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5] 시립도서관 이용 여부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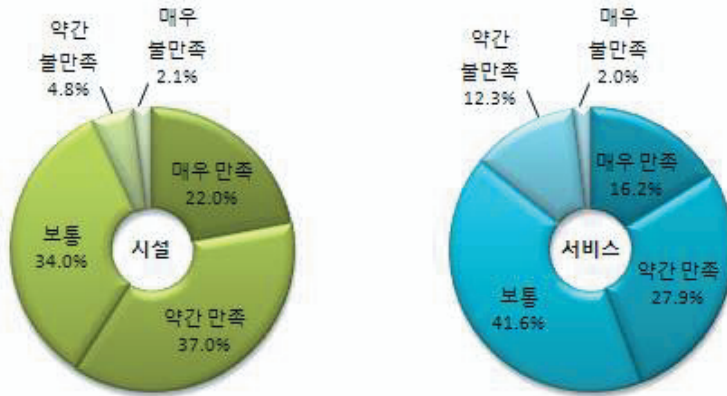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시립도서관 이용						시립도서관 이용안함
		소계	자료이용	도서대출	개인학습	기타		
전체	100.0	25.0	100.0	18.6	45.6	35.0	0.9	75.0
15-19세	100.0	64.1	100.0	11.5	21.6	66.8	-	35.9
20-29세	100.0	41.8	100.0	16.5	36.0	45.1	2.4	58.2
30-39세	100.0	33.6	100.0	22.1	59.0	18.1	0.8	66.4
40-49세	100.0	23.0	100.0	20.2	64.8	15.0	-	77.0
50-59세	100.0	9.5	100.0	24.3	53.7	22.1	-	90.5
60세 이상	100.0	2.1	100.0	44.6	47.6	7.7	-	97.9
65세 이상	100.0	1.1	100.0	41.4	58.6	-	-	98.9
초졸 이하	100.0	0.7	100.0	25.0	75.0	-	-	99.3
중졸	100.0	5.8	100.0	9.9	29.9	60.2	-	94.2
고졸	100.0	25.7	100.0	19.6	40.7	38.3	1.4	74.3
대졸 이상	100.0	42.4	100.0	18.2	49.4	31.8	0.6	57.6

55. 시립도서관 이용 만족도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시립도서관 ‘시설’ 과 ‘서비스’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하는 비율은 각각 59.1%, 44.2%로 나타남

- 시립도서관 ‘시설’에 대해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은 6.9%, 시립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4.3%로 나타남
- 시립도서관 이용 만족도는 ‘시설’ 면이 ‘서비스’ 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립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하는 비율은 남자(49.8%)가 여자(38.3%)보다 높게 나타남



[표 76] 시립도서관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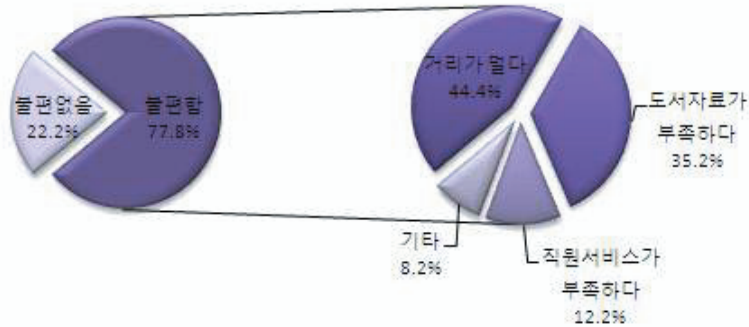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시 설	100.0	59.1	22.0	37.0	34.0	6.9	4.8	2.1
남 자	100.0	59.1	23.6	35.5	33.4	7.5	5.6	1.9
여 자	100.0	59.0	20.4	38.6	34.7	6.3	4.0	2.3
서 비 스	100.0	44.2	16.2	27.9	41.6	14.3	12.3	2.0
남 자	100.0	49.8	18.1	31.8	37.0	13.1	11.5	1.6
여 자	100.0	38.3	14.3	23.9	46.3	15.5	13.1	2.4

56. 시립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

군산시민은 시립도서관을 이용할 때 「거리가 멀다」는 점을 44.4%로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응답함

-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도서자료가 부족하다」 35.2%, 「직원서비스가 부족하다」 12.2%, 「기타」 8.2% 순이며, 기타 내용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시립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대와 20대의 경우, 「거리가 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0%와 53.4%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7] 시립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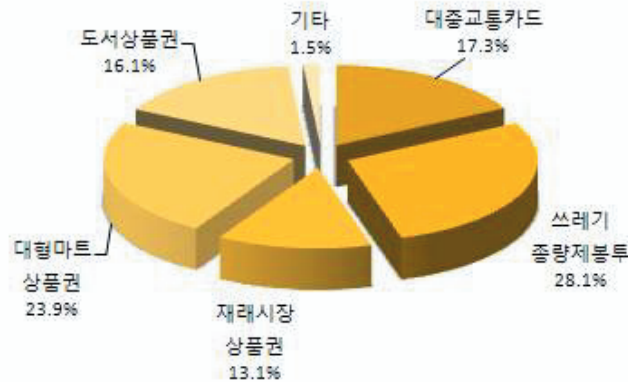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불편함	소계					불편없음
			소계	거리가 멀다	도서자료 부족	직원서비스 부족	기타	
전체	100.0	77.8	100.0	44.4	35.2	12.2	8.2	22.2
남자	100.0	79.0	100.0	48.5	33.9	10.4	7.3	21.0
여자	100.0	76.6	100.0	40.1	36.6	14.2	9.1	23.4
15-19세	100.0	73.9	100.0	56.0	22.6	16.2	5.3	26.1
20-29세	100.0	74.7	100.0	53.4	30.1	7.2	9.4	25.3
30-39세	100.0	79.4	100.0	33.2	39.6	17.4	9.9	20.6
40-49세	100.0	82.6	100.0	37.4	46.8	10.4	5.5	17.4
50-59세	100.0	79.7	100.0	41.3	38.1	5.1	15.5	20.3
60세 이상	100.0	92.0	100.0	43.1	46.5	10.4	-	8.0
65세 이상	100.0	79.3	100.0	47.8	52.2	-	-	20.7

57.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받고 싶은 혜택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의 28.1%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혜택을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26.1%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음으로 받고 싶은 혜택은 「대형마트 상품권」 23.9%, 「대중교통카드」 17.3%, 「도서상품권」 16.1% 순으로 나타남



[표 78]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받고 싶은 혜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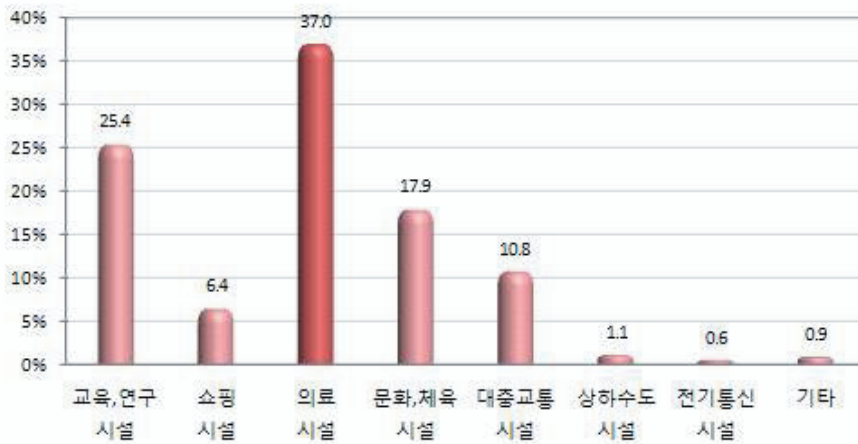
구분	계	탄소 ¹⁾ 포인트제 인지								탄소포인트제 인지못함
		소계	대중교통카드	쓰레기종량제봉투	재래시장상품권	대형마트상품권	도서상품권	기타		
전체	100.0	26.1	100.0	17.3	28.1	13.1	23.9	16.1	1.5	73.9
초졸이하	100.0	4.5	100.0	27.2	42.7	21.7	8.4	-	-	95.5
중졸	100.0	16.7	100.0	20.1	33.4	14.8	20.1	8.8	2.7	83.3
고졸	100.0	25.4	100.0	22.1	29.9	16.9	18.9	10.5	1.7	74.6
대졸이상	100.0	40.7	100.0	13.0	25.4	9.8	28.8	21.9	1.2	59.3
전문관리	100.0	45.0	100.0	6.1	31.6	13.3	25.3	20.4	3.2	55.0
사무	100.0	54.3	100.0	7.6	34.6	13.3	29.2	15.4	-	45.7
서비스판매	100.0	27.9	100.0	20.1	29.6	9.5	19.3	21.5	-	72.1
농어업	100.0	12.5	100.0	21.0	34.1	17.8	22.3	4.8	-	87.5
기능노무	100.0	24.6	100.0	16.1	30.8	10.9	28.7	12.5	1.0	75.4

주 1) 탄소포인트 제도 : 각 가정에서 절약한 에너지(전기, 수도 등)량을 탄소량으로 환산하여 절약된 만큼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정책

58.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

군산시에 가장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 시설」 37.0%, 「교육·연구 시설」 25.4%, 「문화·체육 시설」 17.9%, 「대중교통 시설」 10.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쇼핑 시설», 「문화·체육 시설」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9]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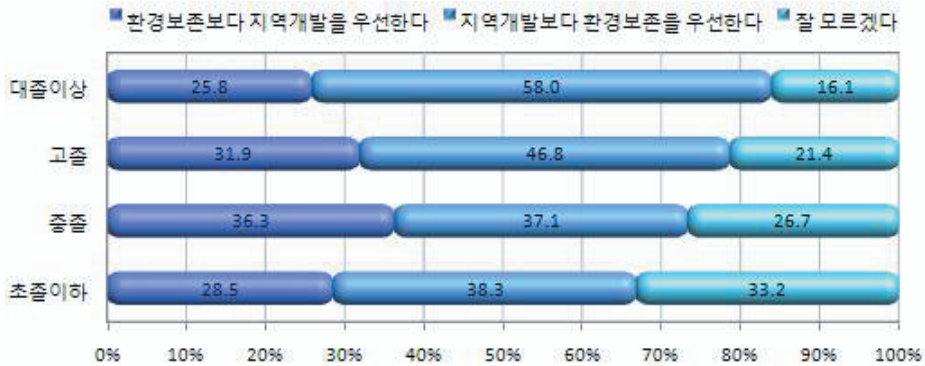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교육, 연구시설	쇼핑시설	의료시설	문화, 체육시설	대중교통 시설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 시설	기타
전체	100.0	25.4	6.4	37.0	17.9	10.8	1.1	0.6	0.9
15-19세	100.0	26.3	15.3	17.6	31.6	7.6	0.9	-	0.8
20-29세	100.0	23.7	14.8	20.8	26.7	12.9	-	-	1.2
30-39세	100.0	31.9	5.8	26.4	24.7	9.7	0.6	0.6	0.3
40-49세	100.0	32.3	4.2	39.9	13.7	7.8	1.1	0.8	0.3
50-59세	100.0	20.2	3.8	47.2	13.3	11.6	3.1	-	0.8
60세 이상	100.0	17.6	1.2	56.7	6.6	13.4	1.1	1.4	2.1
65세 이상	100.0	17.7	1.1	58.9	3.2	13.8	0.9	2.0	2.4
초졸 이하	100.0	13.3	2.0	58.7	6.0	13.7	2.5	1.2	2.7
중졸	100.0	18.8	2.8	48.4	14.8	12.1	1.4	1.2	0.5
고졸	100.0	29.3	7.8	30.3	18.8	11.2	1.5	0.6	0.5
대졸 이상	100.0	29.0	8.3	30.1	23.7	8.3	-	-	0.7

59.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견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면 「지역개발보다 환경보존을 우선한다」는 의견이 48.1%로 가장 많음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지역개발보다 환경보존을 우선한다」는 응답률이 높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보다 남자가, 미취업자보다 취업자가 「환경보존보다 지역개발을 우선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0]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계	환경보존보다 지역개발을 우선한다	지역개발보다 환경보존을 우선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29.8	48.1	22.2
남자	100.0	32.9	48.6	18.5
여자	100.0	26.6	47.6	25.9
초졸이하	100.0	28.5	38.3	33.2
중졸	100.0	36.3	37.1	26.7
고졸	100.0	31.9	46.8	21.4
대졸이상	100.0	25.8	58.0	16.1
취업	100.0	31.8	51.3	16.9
미취업	100.0	27.5	44.4	28.1